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김 남 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동북아연구시리즈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김 남 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는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 즉 수산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에 이웃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산부문은 오랫동안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2001년 무역 적자로 돌아선 이후 수산물 수출의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수산업 여건 변화와 동북아시아 3국의 국제무역구도 속에서 WTO 체제하의 경쟁심화 추세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대폭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의 국제적 국내적 위상, 그리고 3국의 수산물 교역구조와 경쟁관계를 각각 평가하고 3국의 수산부문 무역장벽을 비교 검토한 후,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를 추정하며,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된 수산부문의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한·중·일 수산업의 위상

한·중·일의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빠르게 하락

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 즉 공업화와 서비스화의 정도에 따라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중국 15%, 한국 3% 및 일본 1%로 나타내었다. 2001년 기준으로 어업의 비중은 중국 1.5%, 한국 0.6%, 일본 0.4% 수준이다. 그리고 2001년 기준으로 어가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중국 1.6%, 한국 0.4%, 일본 0.2%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그 비중이 미미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무역수지 적자와 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수산업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이익이 기대되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한 · 중 · 일 수산업의 무역특화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HS 6자리 품목 기준으로 한 · 중 · 일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해보면, 한국 수산물은 그 이전의 수출특화에서 2001년부터 수입특화로 반전된 후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의 0.04에서 2004년에는 -0.29를 기록하였다. 수출특화를 보인 수산물 품목 수는 2000년 34개 품목에서 2004년에는 24개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중 수입특화품목은 37개에서 54개로 증가하였다. 수입특화 중에서도 TSI가 -0.80~-1.0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III그룹, 즉 거의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운 품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무역특화를 보면, 2004년 중 수출특화 9개와 수입특화 79개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완전 수입특화를 의미하는 TSI -0.80~-1.0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III의 품목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수출특화 I 그룹의 수출금액이 10억 엔을 넘는 품목은 가리비, 냉동 날개다랑어, 건조어류 등 단지 3개에 불과하며, 수입특화품목은 60개 품목이 10억 엔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수산물 무역특화는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증가추세와 수산물 무역흑자 증가에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수출특화품목 증가와 수입특화품목 감소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수출특화품목 수가 수입특화품목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중국은 냉동 피레트, 조제가공 수산식품 부문과 일부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부문에서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냉동어류 피레트(14억 달러), 조제 기타 어류(9.2억 달러), 조제새우와 보리새우(5.9억 달러) 조제 기타 연체동물(5.3억 달러) 등 상위 4개 품목의 수출이 34억 달러를 상회하여 중국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쌍무간 수산물 무역에서의 특화관계

한·일·간 수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64로서 상당한 정도의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눈다랑어, 해초류와 기타 조류, 황다랑어 등이 수출특화 I 그룹에, 그리고 기타 활어와 기타 연체동물이 수출특화 II 그룹에 속하였다. 그 중에서 수출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눈다랑어(1.3억 달러), 기타 활어, 기타 연체동물, 해초류와 기타 조류(7,800만 달러) 등이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천만 달러 이상 수출되는 HS 6자리 품목은 16개에 달하였다.

한·중간 무역에서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76으로 매우 높은 수입특화를 나타냈다.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산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수출특화 12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41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갑오징어와 오징어 그리고 냉동 어류의 간장과 어란뿐이었다. 주요 수입특화품목 중 수입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기타 냉동 어류(2.5억 달러), 기타 활어(1.2억 달러) 냉동 게, 문어 등이었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에서 중국은 2004년의 경우 0.93으로 매우 높은 수출특화

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수출특화 59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10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일간 혹은 한·중간 수산물 무역의 경우 더욱 뚜렷한 무역특화를 보여준다. 중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조제 기타 어류(7.9억 달러) 그리고 조제 연체동물(3.5억 달러), 냉동 피레트(3.4억 달러) 등이 두드러졌으며,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연체동물 등, 활 뱀장어 등의 수출금액이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한·중·일 수입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관계

한국의 수산물수입시장에서 50대 품목을 대상으로 일본산과 중국산의 한국시장 점유율 추이를 평가하면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우위(I) 혹은 우위개선(II) 품목이 매우 적으며, 반면 우위약화(III) 혹은 절대열위(IV)의 품목이 많았다. 특히 절대열위인 일본산 수산물은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약화추세가 뚜렷하였다. 반면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절대우위와 우위개선 품목이 32개로서 절대열위와 우위약화 품목 15개의 두 배에 달함으로써, 주요 품목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산의 경우, 점유율 40% 이상의 절대우위(I)에 있으면서도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I-1) 품목이 13개에 달하였는데 조기(냉동)와 갈치(냉동) 등 최대수입품목에서 중국산은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냈으며, 절대우위이면서 상대단가가 하락한 경우(I-2)에도 대체로 상대단가는 미세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절대우위(I)' 그룹에 속하는 품목 수는 한국산은 대구 및 명태 알(조제품)과 기타 어류(활어) 등 11개였으며, 중국산은 12개였다. 중국산의 경우, 특히 눈다랑어, 기타 어류조제품(통조림), 기타 연체류(조제품), 계(조제품) 등 7개의 품목이 일본수입시장에서 압

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열위(IV)’ 그룹으로 구분되는 품목 수는 한국산이 32개 품목이었으며, 중국산은 23개 품목이었다. 중국산 수산물은 2003년의 경우 절대우위에 속하는 품목이 12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품목(I-상승)이 8개에 달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우위 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수입시장에서 상대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58개 중국산 수산물 중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인 품목이 많았다. 특히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 총 12개 중 8개 품목의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이면서 상대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상대단가의 상승과 순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II-1)에도 총 11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이면서 역시 가격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의 여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산물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3%였으며, 중국의 32개 주요 품목에서는 그 비중이 2.53%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산 수산물 가격의 단가지수는 165.73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의 품목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들어 급속히 하락하여, 2004년에는 4.6%를 나타내 1999년의 20.6%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다. 특히 중국의 주요 32개 품목만을 보면 3.39% 수준에 불과하였다. 일본산 수산물로서 중국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넘는 높은 품목으로는 냉동 참치(45.71%), 기타 태평양 연어(39.20), 냉동 보리새우(탈각하지 않은 것)(19.70), 냉동 곱상어 및 상어(14.98), 기타 냉동 계(10.88) 등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수입시장 단가지수는 141.59로서 중국수입의 평균보다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의 165.73보다는 낮았다. 특히 일본산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3개 품목인 냉동 참치, 기타 태평양 연어, 냉동 곱상어의 경우 단가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한국의 수산물 수입관세율은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 수산상품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는 3단계(5%, 10%, 20%)의 매우 단순한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가공상태에 따라 활어(10%), 신선·냉장 어류(20%), 냉동어류(10%),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20%)으로 균등관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수산물분야 비관세 조치로는 수산물 수입검사제도, 이식용 수산물 검역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수산물 기본관세율은 0~40%까지 19단계로 매우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다. 종량세 대상 2개 품목과 선택세(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상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25개 품목은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평균관세율은 7.9%이다. 무관세 수산물 품목은 22개이며, 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103개로 가장 많고 10%가 74개 품목, 15%가 39개 품목이다. 일본은 수입쿼터, 관세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수량규제와 엄격한 검사·검역, 표준·인증제도, 행정지도,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유통관행 등 비관세장벽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수입쿼터(import quota, IQ)는 수산물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김과 일부 어류에 대하여 한국산과 기타 101개 국가산으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수산물 관세율을 비교하면, 첫째, MFN 관세율의 전반적인 수준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다. 한국은 신선·냉장 어류 등 많은 품목에 한국은 2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10% 이하인 일본과 20% 이하인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의 관세율은 HS 4자리 혹은 HS 6자리 품목군별로 3, 5, 8, 10, 20%로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개별 품목별로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일

본의 경우 상당수 수산물품목이 이미 무관세인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한국은 무관세 수산물 품목이 없다.

한·중·일 3국의 수산부문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일본의 수입쿼터제와 한국의 조정관세가 주목된다. 일본은 김에 대한 수입쿼터와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콩치 등 어패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수산물 쿼터와 기타 101개 국가 수산물에 대한 쿼터를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WTO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수입급증품목에 대하여 25~70%의 매우 높은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수산물은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각국은 식품안전과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통관과정에서의 엄격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하며 각종 검사, 인증,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간 보호수준 및 제도의 차이 때문에 심각한 통상장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중·일의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

FTA에 따른 각국의 수산부문 효과에 앞서, 수산부문 시장개방에 따른 3국의 수산부문은 이해득실이 너무나 뚜렷한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어 각국의 입장이 판이하다.

세계 최대 수산물 수출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한·중·일 FTA에서 수산부문이 전면 개방될 경우,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과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한국시장으로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한국시장과 일본시장 확보를 위한 호기로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관세율도 매우 낮으며 한국과 중국

으로부터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지만, 중요한 품목에서는 수입쿼터를 유지하고 있어 인접한 국가들로부터 높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협상에서 자국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민감성, 취약한 구조를 이유로, 수산물을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 부문으로 분류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산업을 농업과 함께 분류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며 시장개방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특수성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존 FTA에서도 수산부문의 양허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의 국제통상협상에서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등에 대하여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무역특화의 정도에서 중국과 일본처럼 양극단에 위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빠른 속도로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수산부문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수산업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중·일 FTA에 따른 한국 수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과 국내 생산능력 증대 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수산부문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FTA의 수산물 교역에 대한 영향

FTA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수산물 관세철폐와 각종 무역장벽의 폐지가 한국산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일본 교역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그리고 대중국 교역에서는 대폭적인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특화보다는 대중국 수입특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한국 수산물이 중국 수산물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수입수요가 어느 정도 증대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국내수산업

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수산물 생산증대 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수산물 중에서 어류(HS 03류)에 비하여 수산가공품(HS 1604, HS 1605)의 경우는 생산 및 수출 확대가 다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품목의 해외수요와 국내공급 등을 감안한 수출공급함수와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관세율 변화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반영한 주문배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수입규모 상위 20대 품목의 수입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16%와 13% 정도 증가하고, 수출규모 상위 20대 품목의 수출은 각각 37.5%와 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각각 상위 20개 품목만을 고려했을 때, 한·중·일 FTA에 따라 한국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4,400만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기준연도를 최근연도로 바꾼다면, 무역수지 적자요인은 더 크게 추정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향후 한·중·일 FTA가 체결되어 무역장벽이 제거될 경우, 3국 수산부문을 생산소비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급증과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한국 수산업의 생산여건을 감안할 때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수산업의 피해증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 속에서 한국 수산부문의 대응방향으로는 ①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② 국내 산업대책으로는 수산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지원체제 개편, ③ 대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수산부문 국제경쟁력 제고와 FDI 진출, ④ 대외협상 측면에서는 한·중·일 FTA의 효율적인 협상 추

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산물 관세양허는 수산업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고, 국내 수산업의 취약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에서 한국은 점진적이고도 신중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외협상으로서 WTO DDA 협상의 전개와 관련지어 양허비율의 수준 및 양허유보품목 선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어획능력 확대와 산업종사자의 소득과 같은 공급 중심의 수산정책은 자원량과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자, 즉 소비자를 중시하는 수산정책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수산업의 비교우위부문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수산물의 향후 소비패턴 변화와 수입수요 전망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막대한 인구의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증대가 요구된다. 소득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증가추세와 중국내 소득계층의 분화지역간 수산물 선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수산양식과 가공분야에서의 대중국 직접투자방안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2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	22
1.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22
가. 수산물 생산	22
나. 수산물 무역	25
다. 한·중·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28
2.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29
가. 수산물 무역구조	29
나. 품목별 무역특화	33
3. 일본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36
가. 수산물 무역구조	36
나. 수산물 품목별 무역특화	38
4. 중국의 수산무역 구조와 무역특화	40
가. 수산물 무역구조	40
나. 품목별 무역특화	43
5. 한·중·일 3국간 수산물 무역특화	45
가. 한·일간 수산무역	45

나. 한·중간 수산물 무역	46
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	48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수산품목별 경쟁력 51

1. 한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51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51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52
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	56
라.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56
마. 조정관세대상품목: 일본산과 중국산 경쟁력	57
2. 일본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59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59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61
다.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64
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69
마. 일본의 IQ 대상품목: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69
3. 중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73
가.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73
나.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73
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75

제4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78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78
가. 수산물 관세율	78
나. 수입수산물 검사	80
다.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	80
2.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81
가. 수산물 수입관세율	81
나. 김 수입쿼터(IQ)	83

다. 기타 어패류에 대한 IQ	84
라. 꿀에 대한 위생검사	85
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85
3.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86
4. 한·중·일의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86

제5장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파급효과와 대응 89

1. 수산부문 개방과 파급효과	89
가. 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3국의 입장	89
나. 일반균형모형의 효과 추정	92
다. 주요 품목의 무역효과 추정	93
라.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대응과제	94
2. 양허의 범위와 속도	95
가.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95
나. 양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97
3. 수산부문 구조조정과 지원체제 개편	98
4.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100
5. 수산부문의 FTA 협상전략	100
가.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	100
나.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	101
다. WTO DDA 및 여타 FTA와의 일관성	101

제6장 요약과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 록 108

Executive Summary 129

표 차례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23
표 2-2.	주요 국가의 수산물 생산(2002년)	24
표 2-3.	주요 국가의 수산물 수출입 규모(2002년)	26
표 2-4.	2004년 한·중·일 3국간 수산물 교역	27
표 2-5.	한·중·일의 산업별 구성	28
표 2-6.	한국의 수산물(MTI 04) 무역	30
표 2-7.	한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산물 무역수지	31
표 2-8.	한국 수산물 무역의 품종별 구조	32
표 2-9.	한국 수산물수입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32
표 2-10.	한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별 분포	34
표 2-11.	한국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34
표 2-12.	일본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36
표 2-13.	일본 수산물 무역의 대상국 구조	37
표 2-14.	일본 수산물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의 점유율	37
표 2-15.	일본 수산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포	38
표 2-16.	일본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39
표 2-17.	중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41
표 2-18.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의 국별 구조	41
표 2-19.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42
표 2-20.	중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포	43
표 2-21.	중국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44
표 2-22.	한·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46

표 2-23. 한·중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48
표 2-24. 중·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49
표 3-1.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점유율 구분	52
표 3-2. 한국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상대단가지수의 변화	52
표 3-3. 한국의 주요 50개 수입수산물	53
표 3-4. 한국 수입시장의 일본산과 중국산의 단가 비교	54
표 3-5. 한국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상대단가지수)	55
표 3-6.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56
표 3-7. 한국 조정관세품목의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	58
표 3-8.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점유율	59
표 3-9. 일본의 주요 수입수산물	60
표 3-10.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산 수산물의 상대단가지수	61
표 3-11.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대중국 상대단가지수	62
표 3-12.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단가 비교	63
표 3-13.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65
표 3-14.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대중국 상대단가지수)	68
표 3-15.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70
표 3-16. 일본 IQ 품목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72
표 3-17.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74
표 3-18. 한국산과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76
표 4-1. 한국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78
표 4-2. 한국의 수산물 조정관세	79
표 4-3. 일본의 수산물 기본관세율	82
표 4-4. 일본의 김에 대한 수입쿼터량 추이	83
표 4-5. 일본의 어패류 9종에 대한 수입쿼터량 추이	84
표 4-6. 수산물 품목군별 WTO 관세율의 한·중·일 비교	88
표 5-1.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주요 수산물의 교역효과	94

그림 차례

그림 2-1. 한·중·일 3국간 수산물 교역 흐름(2004년)	27
------------------------------------------	----

부표 차례

부표 1. 한국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0~04년)	108
부표 2. 일본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13
부표 3. 중국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16
부표 4. 한국의 대일본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20
부표 5. 한국의 대중국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23
부표 6. 중국의 대일본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126

제 1 장 서 론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경제규모와 성장속도 및 구조변화라는 측면에서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축이라 할 만한 지역이다. 수산부문에서 볼 때도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일본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의 위치를 가진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은 주요 수산물 생산 및 수출에서의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2001년 이후에는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이러한 수산물 생산무역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도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 확대, 경쟁심화 추세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은 취약한 국내 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어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높은 수산물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어업과 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 즉 수산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의 일부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의 관련 부문에 반영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구조와 경쟁관계는 한·중·일 3국 수산업의 최신 무역 생산통계를 분석하되,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KOTIS, UN의 COMTRADE, 그리고 FAO의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와 OECD의 *Review of Fisheries: Country Statistics*의 수산부

문 국제통계를 분석 검토한다. 수산제도와 정책에 관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물협회, FAO 등에서 발표된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활용하며, WTO의 *Trade Policy Review*와 APEC Tariff Database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 수산업은 1차 수산물인 수생생물(수생동물과 수생식물로 구분됨)의 포획(어로어업)과 양식(수산양식업) 및 이의 가공(수산가공업)을 포함하며, 이러한 수산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국제교역과 관련하여서는 HS 03류의 어개류, HS 121220의 가공 식용 해조류, HS 15류와 HS 16류 중의 수산가공품, HS 23류의 수산물로부터 조제된 사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¹⁾ 다만 우리나라 수산물의 총수출과 총수입 통계는 MTI 04(수산물)를 기준으로 하였다.²⁾

HS 기준 수산물 품목 분류의 세분 정도는 무역특화관계를 보기 위한 제2장의 무역특화지수에서는 HS 6자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품목별로 해당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제3장에서는 각국의 가장 자세한 분류를 사용하였다. 즉 제3장에서는 각국 수산물의 해당 수입시장 점유율과 함께 단위당 수출입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금액통계와 함께 물량통계가 가능한 품목분류 수준을 사용한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HS 10자리, 일본은 HS 9자리, 중국은 HS 8자리 분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의 국제적 국내적 위상, 그리고 3국의 수산물 교역구조와 경쟁관계를 각각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3국의 수산부문

1) 수산물에는 이외에도 HS 01류(산동물) 중 고래와 돌고래류, 갯지렁이 등, HS 02류(육과 식용설육) 중 해양 포유류의 육 등, HS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중 고래수염, 산호, 패각, 동물성 해면, 어류의 웨이스트 등, HS 1504류(동물성 유지 등) 중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등이 포함되지만, 그 생산과 무역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MTI는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중전의 상공부를 지칭)의 약자이며, 이는 산업적 특성을 크게 고려한 상품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부과와 상품적 특성을 크게 반영하는 HS 분류체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무역장벽을 비교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한·중·일 FTA에 따른 수산부문 무역장벽 철폐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된 수산부문의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검토할 정책과제는 국내 산업 관련 과제로서 국내 수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지원체계 개선, 대외통상과제로서 수산부문 시장개방 양허 시 고려사항 및 민감품목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협상 전략으로서 수산부문의 기본 협상구조와 양허에 대한 자세와 한·중·일 3국간 수산부문 협력방안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 2 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

1.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북서태평양지역에 위치하는 한·중·일은 세계적인 수산대국들이다. 중국은 어업 생산(capture fishery production) 및 수산양식 생산(aquaculture fishery production) 모두에서 압도적인 최대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상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생동물의 생산에서 일본은 어업과 양식 부문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기록하고, 한국도 13위와 14위를 기록한다. 한·중·일 3국의 생산량을 합치면, 2002년의 경우 세계 전체 어업 생산량의 24.3%를 그리고 수산양식에서는 72.6%를 차지한다.

수산물의 국제무역에서도 한·중·일 3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홍콩 포함) 3국이 세계 수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중 세계 수산물 수출에서 11.6%, 수입에서 31.7%를 각각 기록하였다. 수산물 수출의 경우 인접한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비중은 세계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 수산물 생산

세계 전체 수산물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FAO(2004)에 따르면 2002년 중 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의 생산량을 합친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459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1993년의 1억 920만 톤보다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 수생동물(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등)의 세계생산은 1억 3,22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1993년에 비하여 약

30% 증가한 규모이다. 수생동물의 생산방식은 포획과 양식으로 구분되는데, 포획된 수생동물의 생산을 의미하는 어업 생산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9천만 톤을 약간 상회하였다. 2003년에는 9,03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0년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수생동물의 양식 생산은 최근에도 연간 7~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3년에는 4,200만 톤에 달하였다.

미역과 다시마 등 수생식물의 생산량은 2002년의 경우 1,290만 톤으로 수생동물 생산량의 약 1/10 수준이지만, 수생동물의 생산보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생식물의 생산 중 채취생산은 소량이며 대부분 양식을 통하여 생산된다.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 톤)

연도	수생 동물	어업 (포획)	양식		양식		수생 식물			
			해면	내수면	해면	내수면	채취	양식		
1993	101.4	83.6	-	-	17.8	7.3	10.5	7.8	1.1	6.7
1995	117.3	92.8	-	-	24.5	10.4	14.0	8.1	1.3	6.8
2000	130.9	95.4	86.8	8.7	35.5	14.2	21.3	11.5	1.3	10.2
2001	130.7	92.9	84.1	8.7	37.8	15.2	22.5	11.9	1.3	10.6
2002	133.0	93.2	84.5	8.7	39.8	15.9	23.8	12.9	1.3	11.6
2003	132.2	90.3	81.3	9.0	41.9	16.7	25.2	-	-	-

자료: FAO(2004),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 2002*.

수생동물의 어업 생산량을 생산되는 장소에 따라 해면과 내수면으로 나누어볼 때, 각각의 통계는 [표 2-1]과 같다. 해면과 내수면에서의 어획을 모두 합친 어업 생산은 중국에 이어 페루,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내수면 어업 생산량만을 보면 중국에 이어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지역의 인구가 많은 저개발국들의 생산량이 많았다. 이들은 강, 호수, 늪지가 많은 국가이며, 생산비가 높은 육류의 소비를 대신하여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내수면 어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생동물 양식의 경우, 중국이 세계 전체의 거의 70%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해면양식의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과 칠레, 노르웨이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며, 내수면 양식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이 뒤따르고 있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생산량이 거의 세계 생산량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수생식물의 생산량은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 전체의 약 80%를 점하고 있으며, 인접한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92% 이상을 차지한다.

표 2-2. 주요 국가의 수산물 생산(2002년)

(단위: 천 톤, %)

순위	수생동물 생산				수생식물 생산	
	어업		수산양식			
1	중국	16,553 (17.8)	중국	27,767 (69.8)	중국	9,106 (70.4)
2	페루	8,767 (9.4)	인도	2,192 (5.5)	필리핀	895 (6.9)
3	미국	4,937 (5.3)	인도네시아	914 (2.3)	일본	686 (5.3)
4	인도네시아	4,504 (4.8)	일본	828 (2.1)	한국	512 (4.0)
5	일본	4,443 (4.8)	방글라데시	787 (2.0)	북한	444 (3.4)
6	칠레	4,271 (4.6)	태국	645 (1.6)	칠레	316 (2.4)
7	인도	3,770 (4.0)	노르웨이	554 (1.4)	인도네시아	259 (2.0)
8	러시아	3,232 (3.5)	칠레	546 (1.4)	노르웨이	183 (1.4)

표 2-2 계속

순위	수생동물 생산				수생식물 생산	
	어업		수산양식			
9	태국	2,921 (3.1)	베트남	519 (1.3)	인도	90 (0.7)
10	노르웨이	2,743 (2.9)	미국	497 (1.2)	프랑스	80 (0.6)
	(13) 한국	1,689 (1.8)	(14) 한국	297 (0.7)	러시아	56 (0.4)
	한·중·일	22,685 (24.3)	한·중·일	28,892 (72.6)	한·중·일	10,304 (79.7)
	세계 전체	93,191 (100.0)	세계 전체	39,799 (100.0)	세계 전체	12,929 (100.0)

주: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표 2-1]과 동일

나. 수산물 무역

세계 수산물 무역은 2002년의 경우 수입기준으로 614억 달러, 수출기준으로 582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전체 상품교역의 약 1% 정도를 점한다.

수입은 일본과 미국 두 나라가 세계 수산물 수입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일본이 136억 달러(세계 전체의 22.2%) 그리고 미국이 100억 달러(16.4%)를 기록한다. 한국은 18.6억 달러(3%)를 수입하여 수입국 순위 9위로서 세계시장에서의 전체 무역순위 12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중·일과 홍콩을 합친 수산물 수입액은 194.7억 달러로서 세계 전체의 약 32%를 점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은 2002년부터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태국과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이 주요 수출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02년 중 20위로서 10.5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FAO 보고서는 집계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23위를 홍콩은 34위를 기록하면서 한·중·일과 홍콩을 포함할 경우, 이들의 2002년 수산물 수출액은 세계 수산물 수출의 약 11.6%인 67.3억 달러에 달한다.

표 2-3. 주요 국가의 수산물 수출입 규모(2002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국명	금액(비중)	국명	금액(비중)
1	중국	4,485(7.70)	일본	13,646(22.21)
2	태국	3,676(6.31)	미국	10,065(16.38)
3	노르웨이	3,569(6.13)	스페인	3,853 (6.27)
4	미국	3,260(5.60)	프랑스	3,207(5.22)
5	캐나다	3,035(5.21)	이탈리아	2,906(4.73)
6	덴마크	2,872(4.93)	독일	2,420(3.94)
7	베트남	2,030(3.49)	영국	2,328(3.79)
8	스페인	1,890(3.25)	중국	2,198(3.58)
9	칠레	1,869(3.21)	한국	1,861(3.03)
10	네덜란드	1,803(3.10)	덴마크	1,806(2.94)
	(20) 한국 (23) 일본 (34) 홍콩	1,046(1.80) 789(1.36) 411(0.71)	(11) 홍콩	1,766(2.87)
	한·중·일 홍콩	6,731(11.56)	한·중·일 홍콩	19,469(31.68)
	세 계	58,211(100.00)	세 계	61,446(100.00)

주: 국명란의 () 안 숫자는 해당 분야의 세계 순위를 나타냄.

자료: [표 2-1]과 동일

한편 한·중·일 사이의 수산물 무역을 보면, 2004년의 한·중·일 3국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111.1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물론 수산물 수지적자의 큰 부분은 일본의 대규모 수산물 수입에 기인하며, 일본이 수입하는 수산물 중에서 약 26%만이 역내지역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ASEAN 회원국 그리고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역시 역내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수출의 경우 약 64%가 역내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4. 2004년 한·중·일 3국간 수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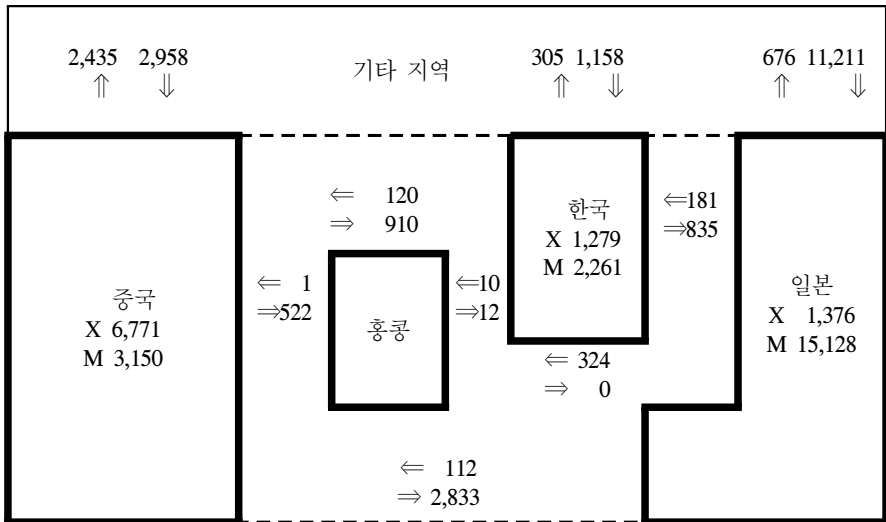
구 분	수 출			수 입			수 지	
	계	역내(%)	역외(%)	계	역내(%)	역외(%)	계	역외
한국	1,279	974(76.2)	305(23.8)	2,261	1,103(48.8)	1,158(51.2)	-982	-853
일본	1,376	700(50.9)	676(49.1)	15,128	3,917(25.9)	11,211(74.1)	-13,752	-10,535
중국	6,771	4,336(64.0)	2,435(36.0)	3,150	192(6.1)	2,958(93.9)	3,621	-523
계	9,426	6,010(63.8)	3,416(36.2)	20,539	5,212(25.4)	15,327(74.6)	-11,113	-11,911

주: 역내국가의 범위에는 한·중·일과 함께 홍콩을 포함하였음.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KOTIS.

그림 2-1. 한·중·일 3국간 수산물 교역 흐름(200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표 2-4]와 동일

다. 한·중·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한·중·일의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 즉 공업화와 서비스화의 정도에 따라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중국 15%, 한국 3% 및 일본 1%로 나타내었다. 2001년 기준으로 어업의 비중은 중국 1.5%, 한국 0.6%, 일본 0.4% 수준이다. 그리고 2001년 기준으로 어가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중국 1.6%, 한국 0.4%, 일본 0.2%로 나타나 3국 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그 비중이 미미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무역수지 적자와 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수산업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이익이 기대되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한·중·일 사이의 FTA 추진에서 각국 수산부문의 입장차이로 나타난다.

표 2-5. 한·중·일의 산업별 구성

(단위: %)

		한 국			일 본			중 국		
		1980년	1995년	2003년	1980년	1995년	2003년	1980년	1995년	2003년
GDP	농림어업 (어업*)	15	6	3 (0.6)	4	2	1 (0.4)	30	21	15 (1.5)
	광공업	40	43	35	42	38	30	49	48	52
	서비스업	46	51	62	54	60	68	21	31	33
참고	어가인구/ 총인구*			0.4			0.2			1.6

주: * 2001년 기준.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호; 일본 농림수산성(2003), *Abstract of Fishery Statistics*.

2.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소득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한국의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어족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감소 혹은 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여, 수산부문 무역수지가 2001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수입액은 지난 12년간 연평균 10% 이상으로 증가하여 1996년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23.8억 달러를 기록한다.

수산물 수출은 1990년대에는 17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11억~1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다. 한국 전체 무역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산물 수출이 1990년에는 전체 수출의 2.3%를 점하였으나 2005년의 경우 0.4%대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반면 수입은 1990년의 0.5% 미만에서 2000년대 초에는 1.2% 수준으로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원유 등 가격급등과 공산품의 수입증대에 못미쳐 수산물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0.9%로 떨어졌다.

2001년에 적자로 돌아선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2년에 적자폭이 7.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수산물 무역수지적자는 거의 12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의 수입증가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수출감소가 더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국 수산물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ASEAN, 미국 등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증하여 중국산의 비중은 1991년의 5% 수준에서 2004년에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해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어종들을 어획하여 낮은 가격으로 한국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비중은 하락하였다.

표 2-6. 한국의 수산물(MTI 04) 무역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0	1,515	2.3	370	0.5	1,146
1995	1,723	1.4	845	0.6	878
2000	1,505	0.9	1,411	0.9	94
2001	1,274	0.9	1,648	1.2	-374
2002	1,160	0.7	1,881	1.2	-721
2003	1,129	0.6	1,961	1.1	-832
2004	1,279	0.5	2,261	1.0	-982
2005	1,193	0.4	2,382	0.9	-1,189

주: * 전체 상품수출(수입)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우리의 수산물 수출대상국을 보면, 일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대일시장 의존도가 최근 하락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 수출의 중국시장 및 미국시장에 대한 비중은 다소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하여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일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 역시 그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보다는 한국 수산물의 대일 수출감소에 연유한다. 한편 우리의 주요 수산물 수입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표 2-7. 한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국가	2000년			2004년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일본	1,124(74.8)	177(13.1)	947	835(65.3)	181(8.0)	654
중국	84(5.6)	486(34.5)	-402	124(9.7)	910(40.2)	-786
미국	79(5.3)	145(10.4)	-66	81(6.3)	136(6.0)	-55
태국	23(1.5)	68(4.9)	-45	38(3.0)	107(4.7)	-69
러시아	5(0.3)	125(8.9)	-120	4(0.3)	277(12.3)	-273
홍콩	13(0.9)	10(0.7)	3	15(1.2)	12(0.5)	3
중·일·홍	1220(81.2)	673(48.1)	548	974(76.2)	1103(48.8)	-129
전체	1,503(100.0)	1,400(100.0)	103	1,279(100.0)	2,261(100.0)	-98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수산물 무역의 품종별 구성을 보면 [표 2-8]과 같다. 수산물 수출은 모든 품종에서 절대금액이 하락하고 있으나, 품종별로는 특히 신선냉장 어류(HS 0302)의 수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유사한 어종의 저가의 중국산의 공급증대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수산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종별로 볼 때 냉동품은 그 비중이 약간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04년에는 59%를 기록하였다. 훈제, 건조, 염장, 염수장, 기타 조제가공 수산물도 그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증대와 소비급화 추세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신선냉장 수산물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지난 3년간 8.3%에서 13.8%로 급상승세를 보였다.

한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을 보면, 2004년의 경우 중국산과 러시아산 수산물이 각각 40%와 12%를 점하면서 한국 수산물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표 2-8. 한국 수산물 무역의 품종별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년		2004년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활어	82.3(6)	118.6(8)	91.6(7)	201.2(9)	-109.6
신선, 냉장	270.1(18)	117.7(8)	144.1(11)	318.3(14)	-174.2
냉동	669.8(45)	928.0(66)	654.7(51)	1338.0(59)	-683.3
훈제	0.6(0)	2.3(0)	4.8(0)	2.1(0)	2.7
건조	80.1(5)	46.3(3)	80.2(6)	73.6(3)	6.2
염장, 염수장	27.9(2)	21.7(2)	23.9(2)	30.7(1)	-6.8
기타	132.0(9)	71.9(5)	92.4(7)	94.7(4)	-2.3
밀폐용기 저장	46.0(3)	3.1(0)	39.9(3)	13.2(1)	26.7
기타 조제	192.7(13)	101.0(7)	147.1(12)	189.6(8)	-42.5
수산물 계	1504.5(100)	1410.6(100)	1278.6(100)	2261.4(100)	-982.4

자료: 해양수산부(2005), 「2004년도 수산물 수출입통계연보」.

중국은 조기, 꽃게, 낙지, 갈치 등 난류성 어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고, 러시아는 명태(냉동)와 명란 및 대게 등 한류성 품목을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은 신선냉장 명태와 갈치, 활 돔 등 상대적인 고가품목들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표 2-9. 한국 수산물수입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단위: %)

연도	수입액*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1991	577.0	5.0	23.2	34.4	7.9	0.4
2000	1,410.6	34.7	8.9	10.4	12.7	5.2
2001	1,648.4	38.5	9.3	9.6	8.4	6.2
2002	1,884.4	38.3	11.5	9.2	7.8	6.5
2003	1,961.1	36.4	15.3	7.8	7.6	6.6
2004	2,261.4	40.2	12.2	6.0	8.0	6.3
2004	1	조기(냉동)	명태(냉동)	명태(냉동 연속)	명태(신냉)	기타(냉동 연속)
품목 순위	2	꽃게	명란	아귀(냉동)	갈치(신냉)	쭈꾸미
	3	낙지(냉동)	대게	명란	돔(활어)	갑오징어(건조)
	4	갈치(냉동)	기타 계	대구(냉동)	명태(냉동)	냉동 새우살
	5	문어	임연수어(냉동)	떡장어(냉동)	기타어류(냉동)	낙지(냉동)

주: * 단위는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품목별 무역특화

본 절에서는 무역특화의 정도에 따라 한국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HS 6자리 품목분류체계에서 수입 혹은 수출 규모가 연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를 구하고 이를 [표 2-10]에서와 같이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³⁾ 무역특화지수는 식 (2-1)과 같이 정의된다.

$$TSI_{ij}^k = |X_{ij}^k - M_{ij}^k| / (X_{ij}^k + M_{ij}^k) \quad (2-1)$$

여기에서 X_{ij}^k , M_{ij}^k 는 각각 i 국의 j 국에 대한 k 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TSI는 한 나라가 해당 품목이 국제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수출지향적일수록 지수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수출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입지향적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며 해당 품목은 수입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분류된 한국 수산물의 대세계 무역에서의 품목별 무역특화 정도의 변화를 [표 2-10]에서 보면, 2000년까지의 수출특화에서 2001년부터 수입특화로 반전되어 그 후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의 0.04에서 2004년에는 -0.29를 기록하였다.

3) HS 6자리 분류기준을 사용한 것은, 수산물의 경우 HS 4자리 분류는 주로 수산물의 가공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원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 수산품목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TSI 외에도 품목의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RCA 지수를 HS 6자리 품목 기준으로 위해서는 2004년의 HS 6자리 세계 수출액을 통하여 번잡한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비하여 추가적인 정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 2-10. 한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별 분포

(단위: 품목 수(HS 6자리))

무역특화	(TSI 구간)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	0.80~1.00	18	12
수출특화 II	0.50~0.80	6	4
수출특화 III	0.00~0.50	10	8
(소 계)		(34)	(24)
수입특화 I	-0.00~-0.50	6	12
수입특화 II	-0.50~-0.80	8	11
수입특화 III	-0.80~-1.00	23	31
(소 계)		(37)	(54)
수산물 전체 TSI		0.04	-0.29

한국 수산물의 HS 6자리 품목별 수출입 금액과 TSI의 2000년과 2002년 및 2004년 수치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출특화를 보인 수산물 품목 수는 2000년 34개 품목에서 2004년에는 24개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중 수입특화품목은 37개에서 54개로 증가하였다. 수입특화 중에서도 TSI가 -0.80~-1.0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III그룹, 즉 거의 완전 수입특화에 가까운 품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품목들 중 수출액 혹은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품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한국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무역특화 그룹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굴 해초류와 기타 조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원상)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신선 또는 냉장 피레트 계(조제 또는 저장처리)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냉동)	눈다랭이,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 계(조제 또는 저장처리) 신선 또는 냉장 피레트 기타 다랭이(냉동)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냉동)

표 2-11 계속

무역특화 그룹	2000년	2004년
수출 특화 II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등)	해초류와 기타 조류 기타 연체동물 등(산 것, 신선냉장)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어류 (원상)
수출 특화 III	기타 활어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냉동 피레트 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어류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등)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수입 특화 I	어류 갑각류 등 사료용 어분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기타 건조 어류(훈제한 것 제외)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기타 활어 조제 또는 저장처리 연체동물 냉동 피레트 어류의 간장과 어란(냉동) 어류, 갑각류 등 사료용 어분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 제외)
수입 특화 II	기타 냉동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기타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게(냉동)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기타 어류(간장 어란 제외, 신선 냉장) 뱀장어(앵글라종, 활어) 냉동 고등어 기타 넙치류(냉동) 냉동 대구
수입 특화 III	기타 어육(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뱀장어(앵글라종, 활어)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 새우, 보리새우(냉동 제외) 문어(산 것, 신선, 냉장)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기타 어육(냉동) 게(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문어(냉동 건조 등) 게(냉동 제외)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제외) 조제 저장처리 기타 어류 문어(산 것, 신선냉장) 새우와 보리새우(조제 저장처리) 바다가재(냉동 제외)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주: 수출특화그룹내의 품목순서는 수출금액 순이며, 수입특화의 경우는 수입금액 순임.

3. 일본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며 또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다. 일본의 수산물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에도 못미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004년 중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 품목별로는 냉동 어류, 갑각류가 전체 수산물 수입의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으며, 어육·피레트, 연체동물 및 가공어류의 수입규모가 각각 10억 달러를 상회한다. 국별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대만, 한국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수산물 수출은 홍콩, 한국, 미국, 태국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표 2-12. 일본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단위: 십억 엔)

HS(품목)	2000년			2002년			2004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0301(활어)	5	37	-32	4	40	-36	5	54	-49
0302(신선냉장어류)	11	118	-107	11	105	-94	13	95	-82
0303(냉동 어류)	19	438	-417	24	442	-418	36	412	-376
0304(어육, 피레트)	7	145	-138	8	190	-182	7	187	-180
0305(어류, 건조염장 등)	3	29	-26	1	32	-31	2	27	-25
0306(갑각류)	2	436	-434	3	389	-386	4	320	-316
0307(연체동물 등)	12	179	-167	16	174	-158	15	149	-134
121220(김)	2	17	-15	2	19	-17	2	22	-20
1604(가공어류)	10	167	-157	11	165	-155	9	165	-156
1605(기타 가공수산물)	17	102	-88	18	120	-101	22	128	-106
계	139	1,734	-1,595	137	1,762	-1,655	149	1,637	1,488

주: 달러당 엔화의 평균환율은 2000년 107.70, 2002년 125.14, 2004년 108.02.

자료: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1996년부터 최대 수출국의 지위에 오른 이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의 경우 20%를 넘어섰다. 중국 등장

이전에 일본시장에서 압도적인 최대 수출국 지위를 누렸던 미국은 최근 들어 9%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초 이전에는 미국에 이은 제2위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국이었으나, 그 후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하였다.

표 2-13. 일본 수산물 무역의 대상국 구조

(단위: 십억 엔, %)

국 가	2000년			2004년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중국	6(4.3)	267(15.4)	-261	20(13.5)	335(20.5)	-315
한국	17(12.2)	125(7.2)	-108	21(14.0)	91(5.6)	-70
홍콩	35(25.2)	-	35	35(23.8)	-	35
미국	32(23.0)	169(9.7)	-137	26(7.4)	148(9.0)	-122
러시아	-	139(8.0)	-139	2(1.3)	117(7.1)	-115
태국	4(2.9)	121(7.0)	-117	8(5.1)	110(6.7)	-102
한·중·홍	58(41.7)	392(22.6)	-234	76(51.3)	426(26.1)	-350
전 체	139(100.0)	1,734(100.0)	-1,595	149(100.0)	1,637(100.0)	1,488

자료: [표 2-12]와 동일

표 2-14. 일본 수산물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의 점유율

(단위: %)

연도	수입*	중국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
1991	12,522	7.38	18.41	8.38	6.07	3.04	9.76
1995	18,445	11.32	13.46	8.50	7.17	7.30	7.02
2000	16,129	15.40	9.72	6.97	6.40	8.02	7.21
2001	14,236	16.35	10.11	7.55	6.76	7.33	6.77
2002	14,083	17.45	9.65	7.38	6.65	6.37	6.06
2003	13,510	18.00	9.20	7.30	6.40	8.00	5.40
2004	15,128	20.52	9.00	6.74	5.44	7.13	5.55
2004 주요 품목	1	IQ 어육 피레트(냉동)	대구어란(냉동)	새우(냉동)	새우(냉동)	대구알(냉동)	눈다랑어(냉동)
	2	기타 어육 피레트(냉동)	대구연육(냉동)	연육(냉동)	눈다랑어	대게(냉동)	활어
	3	새우(냉동)	홍연어(냉동)	몽고오징어(냉동)	황다랑어	대게(활, 신냉)	참치피레트(냉동)
	4	장어(활어)	은대구(냉동)	오징어(냉동)	가다랑어(냉동)	왕게(활, 신냉)	황다랑어(냉동)
	5	눈다랑어(냉동)	대구(냉동)	이또요리(냉동)	다랑어 필레	홍연어(냉동)	굴(산, 신냉 등)
	6	분어(냉동)	왕게(냉동)	기타 어육(냉동)	눈다랑어(냉동)	왕게(냉동)	기타 연체동물

주: * 단위는 백만 달러.

나. 수산물 품목별 무역특화

일본의 품목별 무역통계는 엔화 표시로 발표되고 있어 여기에서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이 1천만 엔(약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HS 6자리)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의 수산 품목별 무역특화 추이를 보면,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중 수출특화 9개와 수입특화 79개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수출특화 10개, 수입특화 71개에 비해서도 수입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거의 완전 수입특화를 의미하는 TSI -0.80~-1.0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III의 품목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15. 일본 수산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포

(단위: 품목 수(HS 6자리))

특화그룹	(TSI)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	0.80~1.00	3	7
수출특화 II	0.50~0.80	3	-
수출특화 III	0.00~0.50	4	2
(소 계)		(10)	(9)
수입특화 I	-0.00~-0.50	3	11
수입특화 II	-0.50~-0.80	15	11
수입특화 III	-0.80~-1.00	53	57
(소 계)		(71)	(79)

이 품목들의 수출입금액과 TSI는 [부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품목들 중 수출액 혹은 수입액이 10억 엔(약 1천만 달러)을 상회하는 주요 품목과 그들의 TSI는 [표 2-16]과 같다. 2004년의 경우 수출특화 I 그룹의 수출금액이 10억 엔을 넘는 품목은 가리비, 냉동 날개다랑어, 건조어류 등 단지 3개에 불과하며, 수입특화 품목은 60개 품목이 10억 엔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표 2-16. 일본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특화그룹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	가리비	가리비
수출특화 II	냉동 날개다랑어 건조 어류	
수출특화 III	조제 고등어	냉동 날개다랑어 건조 어류
수입특화 I	조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조제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신선 냉장 기타 어류 신선 냉장 어류 피레트 활 관상어
수입특화 II	조제 가공처리 어류 기타 신선 냉장 어류 기타 활어 냉동 납치류 냉동 대구 신선 냉장 어류 피레트 냉동 가다랑어 혹은 버니토우 활 관상어 냉동 곱상어	냉동 기타 어류 기타 연체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 냉동 기타 태평양 연어 조제 어류 기타 활어 신선 냉장 눈다랑어 냉동 가다랑어 조제 고등어기타 훈제어류 냉동 곱상어
수입특화 III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조제 가공처리 기타 어류 기타 냉동 참치 기타 냉동 어류 게 어류 간장과 어란 냉동 어류 피레트 냉동 태평양 연어 등 43개 품목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어류 피레트 기타 조제 어류 냉동 참다랑어 냉동 어류 간장과 어란 냉동 기타 어육 조제 새우와 보리새우 게 등 43개 품목

주: 수출특화그룹내의 품목순서는 수출금액 순이며, 수입특화의 경우는 수입금액 순임.

4. 중국의 수산무역 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수산물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2004년 중 68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중국은 약 31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연간 약 36억 달러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중국 수산물 수출의 품목별 구조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수산가공품(HS 1604, 1605)이 약 26억 달러(38.4%)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어육·피레트(HS 0304)가 14.7억 달러(21.8%)에 달하여 이 두 품목이 총수산물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품목군에서 중국은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거의 모든 수산물 품목군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명태와 대구 등 한류성 냉동 어류를 포함하는 냉동어류(HS 0303)와 사료용 어분 등(HS 230120)에서는 각각 11억 달러와 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중국 수산물 무역의 주요 상대국을 보면,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에 대하여 28.3억 달러를 수출하고 1.1억 달러를 수입하여 27.2억 달러의 수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밖에도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각각 연간 9.8억 달러와 9.6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하여 각각 9억 달러와 6.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일본, 한국, 미국 등 3개 국가와의 교역에서만 중국은 43.5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 무역흑자를 낳았다.

반면 한류성 어족을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 및 북한과의 수산물 무역에서 중국은 각각 7.1억 달러와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중국 수산물 수출에서 한국, 일본,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경우 64%를 넘었으며, 이 3개 국가와의 수산물 무역에서 중국은 41.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다.

표 2-17. 중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단위: 백만 달러)

HS(품목명)	2000년			2002년			2004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0301(활어)	123	51	72	169	17	152	324	11	313
0302(신선냉장 어류)	121	14	107	155	21	134	221	82	139
0303(냉동 어류)	412	685	-273	485	1,004	-519	508	1,517	-1,109
0304(어육, 피레트)	654	24	630	929	23	906	1,472	46	1,426
0305(건조염장 등 어류)	110	41	69	133	35	98	185	40	145
0306(갑각류)	413	216	197	443	191	252	687	312	375
0307(연체동물 등)	437	182	255	562	273	289	664	332	332
121220(가공해초)	86	11	75	95	15	80	114	25	89
1604(가공 어류)	933	2	931	866	2	864	1,190	5	1,185
1605(기타 가공수산물)	457	3	454	762	7	755	1,402	18	1,384
230120(사료용 어분)	3	574	-571	4	635	-631	4	763	-759
소 계	3,749	1,802	1,934	4,603	2,223	2,391	6,771	3,150	3,621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표 2-18.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의 국별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대상국	2000년			2004년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지
일본	2,013(53.7)	138(7.7)	1,875	2,833(41.9)	112(3.6)	2,721
한국	431(11.4)	69(3.8)	362	981(14.5)	82(2.6)	899
미국	521(13.9)	123(6.9)	398	961(14.2)	309(9.8)	652
러시아	13(0.3)	419(23.3)	-406	74(1.1)	807(25.6)	-733
홍콩	211(5.6)	4(0.2)	207	522(7.7)	1(0)	521
독일	107(2.8)	5(0.3)	102	232(3.4)	10(0.3)	222
북한	1(0)	4(0.2)	-3	6(0.1)	261(8.3)	-255
한·일	2,655(70.8)	220(11.7)	2,445	4,336(64.1)	192(6.1)	4,144
전체	3,749(100)	1,2802(100)	1,934	6,771(100)	3,150(100)	3,621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데다 대구와 연어 등 한류성 어종과 사료용 어분과 펠리트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수입대상국도 러시아, 미국, 북한 등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등 품목과 대상국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수산물은 중국 수입의 약 1/3을 점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수산물 수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90년대까지 중국 수산물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던 북한의 비중이 2003년과 2004년 중에는 약 11%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산 수산물의 비중도 10%를 상회하였다.

한국산과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9.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단위: %)

연도	수입액*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한국
1998	682	40.9	0.4	8.1	12.9	6.3
1999	899	28.7	0.7	6.1	20.6	4.0
2000	1,228	28.2	0.3	6.6	11.2	5.5
2001	1,350	36.1	3.6	7.4	8.1	3.5
2002	1,588	39.2	9.0	6.7	6.4	2.5
2003	1,905	34.8	10.9	7.0	6.4	2.7
2004	2,387	32.7	10.9	10.3	4.6	3.3
2004 주요 품목	1	대구(냉동)	수생무척추 동물	대구(냉동)	기타 대서양 연어	오징어 (냉동)
	2	대구어란 (냉동)	민물참게	가자미 (냉동)	대구(냉동)	대구(냉동)
	3	어류(냉동)	신선냉장 어류	어류 간장 어란	기타어류 (냉동)	기타 달팽이
	4	대서양 연어	오징어(냉동)	기타 대서양 연어	기타 냉동계	기타 어류 (냉동)
	5	가자미 (냉동)	기타 달팽이	어육(냉동)	어류간장어란 (냉동)	가자미 (냉동)

주: *단위는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품목별 무역특화

중국 수산품목들의 무역특화 정도는 중국의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증가 추세와 수산물 무역흑자 증가를 감안할 경우 예상되는 바와 같이 수출특화품목 증가와 수입특화품목 감소로 나타났다.

표 2-20. 중국 수산품목의 무역특화지수 분포

(단위: 품목 수(HS 6자리))

특화그룹	(TSI)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	0.80~1.00	29	36
수출특화 II	0.50~0.80	16	11
수출특화 III	0.00~0.50	12	11
(소 계)		(57)	(58)
수입특화 I	-0.00~-0.50	10	5
수입특화 II	-0.50~-0.80	1	6
수입특화 III	-0.80~-1.00	21	19
(소 계)		(32)	(30)

[표 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특화품목 수가 수입특화품목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58개였다. 특히 무역특화지수가 0.80을 넘는 품목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36개에 달하였다.

이 품목들의 수출입금액과 TSI는 [부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품목들 중 수출액 혹은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품목은 [표 2-21]과 같다. 중국은 냉동 피레트, 조제가공 수산식품 부문과 일부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부문에서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었다. 특히 냉동 어류 피레트(14억 달러), 조제 기타 어류(9.2억 달러), 조제새우와 보리새우(5.9억 달러), 조제 기타 연체동물(5.3억 달러) 등 상위

4개 품목의 수출이 34억 달러를 상회하여 중국의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품목들을 포함하여 중국은 1억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이 17개에 달하였다.

대표적인 수입 수산품목은 사료용 어분과 냉동 대구이며, 이들의 수입특화는 -0.99와 -0.98 수준이며 해덕, 청어, 연어, 넙치류 등 냉동 어류부문에서도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품 중에서는 사료용 어분(7.6억 달러)과 냉동 대구(7.2억 달러) 2개 품목의 수입이 14.9억 달러로 중국의 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거의 절반에 달함으로써 여타 품목의 수입은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표 2-21. 중국 주요 수산물의 무역특화 그룹별 품목

특화그룹	2000년	2004년
수출특화 I	조제 기타 어류(원상 또는 조각) 냉동 피레트 조제 기타 연체동물 신선냉장 기타 어류 조제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활어 조제 기타 갑각류 조제 게 조제 기타 어류 등 15개 품목	냉동 피레트 조제 기타 어류(원상 또는 조각) 조제 새우와 보리새우 조제 기타 연체동물 기타 활어 조제 게 조제 기타 어류 활 뱀장어 조제 기타 갑각류 해초류와 기타 조류 등 19개
수출특화 II	해초류와 기타 조류 기타 연체동물 냉동 문어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와 훈제 등) 활 문어 냉동되지 않은 게 홍합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신선냉장 기타 어류 냉동 문어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와 훈제 등) 기타 연체동물(냉동)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하지 않은 것)
수출특화 III	냉동 기타 어류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건조 어류 냉동 어류 간장과 어란 냉동 기타 어육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하지 않은것)	냉동 기타 어류 오징어(신선 냉장 아닌 것) 기타 연체동물(활, 신선 냉장) 냉동 게 냉동하지 않은 게 냉동 기타 어육 건조 기타 어류

표 2-21 계속

특화그룹	2000년	2004년
수입특화 I	냉동 오징어 냉동 게 활 뱀장어	냉동 어류 간장과 어란 달팽이
수입특화 II	-	냉동 가자미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 넙치류 냉동 곱상어
수입특화 III	사료용 어분 냉동 대구 냉동 가자미 냉동 고등어 냉동 청어 냉동 태평양 연어	사료용 어분 냉동 대구 냉동 기타 태평양 연어 냉동 청어 냉동 넙치 냉동 해덕 신선냉장 태평양 연어 닭새우류

주: 수출특화그룹내의 품목순서는 수출금액 순이며, 수입특화의 경우는 수입금액 순임.

5. 한·중·일 3국간 수산물 무역특화

가. 한·일간 수산물 무역

한·일간 무역에서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64로서 상당한 정도의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0만 달러(한국 무역통계 기준)를 상회하는 수산품목(HS 6자리)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수출특화 42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11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수산물 무역에서의 수출입금액과 TSI는 [부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눈다랑어, 해초류와 기타 조류, 황다랑어 등이 수출특화 I 그룹에, 그리고 기타 활어와 연체동물이 수출특화 II 그룹에 또 기타 냉동 어류가 수출특화 III 품목에 속하였다. 그 중에서 수출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눈

다랑어(1.3억 달러), 기타 활어(8천만 달러), 기타 연체동물(7,900만 달러), 해초류와 기타 조류(7,800만 달러) 등이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천만 달러 이상 수출되는 품목은 16개에 달하였다.

주요한 수입특화품목 중 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은 신선냉장 기타 어류(6,700만 달러 수입) 하나밖에 없었다. 물론 수출특화품목 중에서 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세 개가 더 있었다.

나. 한·중간 수산물 무역

한·중간 무역에서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76으로 매우 높은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0만 달러(한국 무역통계 기준)를 상회하는 수산품목(HS 6자리)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수출특화 12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41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일간 수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특화의 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화의 정도는 더 심하다 할 수 있다.

표 2-22. 한·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특화그룹	HS	품목명	한국 수출 (천 달러)	한국 수입 (천 달러)	TSI
수출특화 I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스)	126,993	1,869	0.97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77,625	496	0.99
	0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62,111	179	0.99
	030420	냉동한 피레트	54,945	5,535	0.82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45,986	1,207	0.95
	030710	굴	38,516	71	1.00
	160510	계(조제 또는 저장처리)	37,245	258	0.99
	030410	신선냉장 어류 피레트	27,821	267	0.98

표 2-22 계속

특화그룹	HS	품목명	한국 수출 (천 달러)	한국 수입 (천 달러)	TSI
수출특화 I	160590	조제 저장처리 연체동물	25,244	1,692	0.87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한것)	19,836	50	1.00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10,772	1,030	0.83
수출특화 II	030199	기타 활어	80,087	24,739	0.53
	030791	기타 연체동물 등(원상 조각)	79,371	12,587	0.73
	030799	기타 연체동물 등 (기타)	14,288	3,773	0.58
수출특화 III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	31,669	28,139	0.06
	030374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5,595	5,199	0.04
수입특화 II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5,756	67,437	-0.62
수입특화 III	030264	고등어(신선냉장)	193	3,973	-0.91
	030250	대구(신선냉장)	0	2,103	-1.00
계			809,754	176,002	0.64

한국의 대중국 수산무역의 HS 6자리 기준 품목별 수출입과 TSI는 [부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품목들 중에서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을 보면 [표 2-23]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냉동 건조 등 4,450만 달러) 그리고 냉동 어류의 간장과 어란(2,380만 달러) 뿐이었다. 주요 수입특화품목 중 수입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기타 냉동 어류(2.5억 달러), 기타 활어(1.2억 달러), 냉동 계(7,950만 달러), 문어(5,700만 달러) 등이 있었으며, 이 품목들을 포함하여 17개 품목의 경우 2004년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넘었다.

표 2-23. 한·중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특화그룹	HS	품목명	한국 수출 (천 달러)	한국 수입 (천 달러)	TSI
수출특화 I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44,513	2,074	0.91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23,761	2,438	0.81
수입특화 I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6,987	12,366	-0.28
수입특화 III	030379	기타 냉동 어류(간장 어란 제외)	23,424	252,216	-0.83
	030199	기타 활어	86	117,805	-1.00
	030614	게(냉동)	1,428	79,515	-0.96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37	57,081	-1.00
	030420	냉동 어류 피레트	3,767	42,365	-0.84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	41,249	-1.00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	-	37,531	-1.00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2	30,929	-1.00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931	29,961	-0.94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대용물	18	25,297	-1.00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599	24,355	-0.95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어류	410	21,829	-0.96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	999	21,255	-0.91
	030192	뱀장어(앵글라중, 활어)	-	18,758	-1.00
	030490	기타 어육(냉동)	340	17,907	-0.96
	030791	기타 연체동물 등(원상, 조각)	305	12,840	-0.95
	계			122,848	905,753

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

중·일간 수산무역에서 중국의 무역특화는 2004년의 경우 0.93으로 매우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0만 달러(중국 무역통계 기준)를 상회하는 수산품목(HS 6자리)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수출특화 59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10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일간 혹은 한·중간 수산물 무역에서 보다 분명한 무역특화를 보여주고 있다. 품목별 내용은 [부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4. 중·일간 수산물 무역의 특화관계(2004년)

(단위: 천 달러)

특화그룹	HS	품목명	수출	수입	TSI
수출특화 I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791,131	35	0.9999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352,630	354	0.9980
	030420	냉동한 어류 피레트	344,724	636	0.9963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35,851	4,203	0.9400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117,797	90	0.9985
	030192	뱀장어(앵귌라종, 활어)	102,096		1.0000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	84,413	55	0.9987
	121220	해조류와 기타 조류	80,470	1185	0.9710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	78,589		1.0000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등)	73,157	7,360	0.8172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58,348	30	0.9990
	030269	기타 어류(간장, 어란 제외, 신선냉장)	56,862	16	0.9994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54,235	9	0.9997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어류(원상, 조각)	42,033	359	0.9831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41,422	13	0.9994
	030199	기타 활어	40,775	70	0.9966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37,682	1,361	0.9303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29,715	498	0.9670
	030799	기타 연체동물 등(냉동, 건조)	26,675	1,128	0.9189
	030490	기타 어육(냉동한 것)	24,805	143	0.9885
	030710	굴	18,866	129	0.9864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18,424	285	0.9695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	16,151	6	0.9993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 제외)	13,635	396	0.9436
	수출특화 II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57,881	9,062
030614		게(냉동한 것)	37,475	8,544	0.6287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한 것)	32,803	8,047	0.6060
수입특화 III	030319	냉동 기타 태평양 연어	59	36,809	-0.9968
	030360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119	11,481	-0.8224
		계	2,833, 820	110,923	0.9247

이 품목들 중에서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을 보면 [표 2-24]와 같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조제 기타 어류(7.9억 달러) 그리고 조제 연체동물(3.5억 달러), 냉동 피레트(3.4억 달러) 등이 두드러졌으며,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연체동물, 활뱀장어 등의 수출금액이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 품목들을 포함하여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금액을 기록한 품목은 27개 품목에 달하였다.

주요 수입특화품목으로는 냉동 기타 태평양연어와 냉동 대구 등 두 품목만이 수입금액 1천만 달러를 넘었다.

제 3 장 한·중·일의 주요 수산물목별 경쟁력

본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살펴보고, 한·중·일의 수입시장에서 각국 수산물간의 경쟁관계와 국제경쟁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품목별로 한·중·일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각국 수산물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과 상대단가(relative unit price) 추이와 그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다.⁴⁾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해당 품목이 그 시장에서 시현한 종합적인 국제경쟁력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수입단가 혹은 시장의 평균수입단가와 비교된 상대단가지수는 대표적인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시현된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가격경쟁력과 함께 비가격경쟁력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50대 수입수산물목(HS 10단위)을 대상으로 일본산과 중국산의 한국시장점유율 추이를 평가하면, 일본산의 경우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절대우위(I) 품목은 3개에 불과하며, 시장점유율이 1~40%이면서 2000~03년 사이에 상승한 품목(II)은 5개에 불과하였다. 점유율이 떨어진 품목

4) 본 장의 내용 중 일본과 한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 분석은 김남두(2004)에서 발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Ⅲ)은 11개였으며 그리고 한국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인 품목(Ⅳ)은 31개 품목이었다.

50대 품목 중 중국은 23개 품목이 4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한국 수입 시장을 압도하고 있으며 1% 미만의 품목은 10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중국산 수산물도 점유율 상승품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점유율 구분

	구 분		일본산 품목 수	중국산 품목 수
	2003년 수준	2000~03년 변화		
절대우위(Ⅰ)	40% 이상	-	3	23
우위개선(Ⅱ)	1~40%	상승	5	9
우위약화(Ⅲ)	1~40%	하락	11	8
절대열위(Ⅳ)	1% 미만	-	31	10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한국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평균단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산 수산물 중에는 100을 상회하는 품목이 많았으며, 중국산은 100을 하회하는 품목이 훨씬 많았다. 2000~03년 중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 일본산 품목 수와 하락한 품목 수는 비슷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하락한 품목이 다소 많았다.

표 3-2. 한국 수입시장에서 품목별 상대단가지수의 변화

2003년 수준	구 분		일본산 품목 수	중국산 품목 수
	2000~03년 변화			
100 이상	상승		17	13*
	하락		9	7
100 미만	상승		2	9
	하락		8	118

주: * 시장점유율이 100인%이거나 상대단가가 100으로 변동이 없는 5개 품목이 포함.

한국시장에서 일본산과 중국산의 단위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50대 품목 중 양국 수산물이 함께 한국시장에 진출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산 수산물 단가를 100으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상대단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교 가능한 총 34개 품목 중 일본산의 단가가 중국보다 낮은(대중국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 품목은 10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4개 품목은 그 지수가 100을 상회하였다.

표 3-3. 한국의 주요 50개 수입수산물

HS 코드	품 명	HS 코드	품 명
0303-79-6000	조기(냉동)	0307-49-3000	오징어(건조)
0303-79-1000	명태(냉동)	1605-90-9030	콜뱅이(기타 조제)
0303-79-3000	갈치(냉동)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 제외)	0301-99-9050	농어(활어)
0303-79-9091	아귀(냉동)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 냉동)
0304-90-1090	기타 연육(냉동)	0303-39-0000	기타 넙치류(냉동)
0306-14-3000	꽃게(냉동)	0301-99-4000	돔(활어)
0306-13-9000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0304-90-1010	명태연육(냉동)	0307-59-1030	쭈꾸미(냉동)
0306-24-1090	기타 게(신선, 냉장)	0304-20-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0307-59-1020	낙지(냉동)	0303-60-0000	대구(냉동)
0302-69-9090	기타 어류(신선, 냉장)	0301-99-9092	붕어(활어)
0303-74-0000	고등어(냉동)	0303-79-9020	복어(냉동)
0303-79-9099	기타 어류(냉동)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0302-69-1000	명태(신선, 냉장)	0303-79-9096	가오리(냉동)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0303-79-9093	홍어(냉동)
1604-19-9010	쥐치포(통조림 외 조제품)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0303-79-9097	까나리(냉동)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301-92-9000	뱀장어 기타(앵귤라종, 활어)	0301-99-9095	민어(활어)
0304-20-9000	기타 어류 피레트(냉동)	1605-90-9010	조미오징어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등)
0307-51-0000	문어(산 것/신선, 냉장)	0305-59-3000	명태(복어(건조))
0306-22-0000	바다가재(호마루스종, 냉동 외)	1604-19-9090	기타 어류(통조림 외 조제품)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0301-99-9091	노래미(활어)
1605-90-9090	기타 연체동물(밀폐용기 이외)	0301-92-1000	실장어(앵귤라종, 활어)

표 3-4. 한국 수입시장의 일본산과 중국산의 단가 비교

HS 코드	품목명	2003년 대중국 상대단가지수	2000-03년 변화방향
0306-13-9000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37.5	↓
0303-39-0000	기타 넙치류(냉동)	46.3	↓
0305-59-3000	명태(북어(건조))	54.6	↓
0303-60-0000	대구(냉동)	66.2	↑
0302-69-9090	기타 어류(신선, 냉장)	83.6	↑
0303-79-1000	명태(냉동)	91.3	↑
0306-14-3000	꽃게(냉동)	91.4	↑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91.5	↑
0303-79-3000	갈치(냉동)	91.6	↓
0301-99-9095	민어(활어)	97.7	-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109.0	↓
0303-79-9091	아귀(냉동)	114.9	↑
0303-79-9020	복어(냉동)	118.4	↑
0307-59-1020	낙지(냉동)	120.8	↓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냉동))	121.9	↑
0304-20-9000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126.9	↓
0303-79-9099	기타 어류(냉동)	128.0	↑
0302-69-1000	명태(신선, 냉장)	129.1	↑
0301-99-9050	농어(활어)	138.2	↑
0301-99-4000	돔(활어)	140.4	↓
0303-79-9093	홍어(냉동)	141.5	↓
1604-19-9090	기타 어류(통조림 외 조제품)	149.8	↓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154.4	↑
0303-79-9096	가오리(냉동)	169.9	↑
0303-79-6000	조기(냉동)	174.8	↑
0307-51-0000	문어(산 것/신선, 냉장)	175.4	↑
0304-90-1090	기타 연육(냉동)	203.0	↓
0303-74-0000	고등어(냉동)	259.2	↑
0306-24-1090	기타 게(신선, 냉장)	284.8	↑
1605-90-9090	기타 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 것 외)	370.2	↓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 제외)	378.0	↑
0304-90-1010	명태연육(냉동)	494.4	↑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557.2	↑
1605-90-9010	조미오징어	709.7	↑

표 3-5. 한국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상대단가지수)

그 룹	상대단가변화(2000-03년)			
	상 승		하 락	
절대우위 (I)	0301-99-4000	돔(활어)	0302-69-1000	명태(신선, 냉장)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우위개선 (II)	0307-51-0000	문어(산 것, 신선, 냉장)	0304-20-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0303-60-0000	대구(냉동)
			0306-13-9000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7-59-1020	낙지(냉동)
우위약화 (III)	0303-79-9099	기타 어류(냉동)	0304-20-9000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0302-69-9090	기타 어류(신선, 냉장)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 제외)
	0301-99-9050	농어(활어)	1604-19-9090	기타 어류(통조림 외 조제품)
	0306-24-1090	기타 게(신선, 냉장)	0303-79-1000	명태(냉동)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냉동))	1605-90-9090	기타 연체동물(밀폐용기 이외)
절대열위 (IV)			0305-59-3000	명태(건조) 복어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0303-74-0000	고등어(냉동)
	0303-79-9020	복어(냉동)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303-79-3000	갈치(냉동)	0303-39-0000	기타 넙치류(냉동)
	1605-90-9010	조미오징어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0304-90-1010	명태연육(냉동)	0301-99-9095	민어(활어)
	0303-79-9093	홍어(냉동)	0303-79-9091	아귀(냉동)
	0303-79-6000	조기(냉동)		
	0304-90-1090	기타 연육(냉동)		
	0306-14-3000	꽃게(냉동)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0303-79-9096	가오리(냉동)			

주: 1. 2003년 중 한국시장에서 대일 수입실적이 없어 상대단가의 비교가 불가능한 14개 품목은 평가하지 않았음.

2.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상대단가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을 의미함.

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의 변화 등을 결합하여 평가하면,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우위(I) 혹은 우위개선(II) 품목이 매우 적으며, 반면 우위약화(III) 혹은 절대열위(IV)의 품목이 많았다. 특히 절대열위인 일본산 수산물의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약화가 뚜렷하였다.

라.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보면, 절대우위와 우위개선의 품목이 32개로서 절대열위와 우위약화 품목 15개의 두 배에 달함으로써, 주요 품목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3-6.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그 룹	상대단가 변화(2000-03년)			
	상승(1)	하락(2)		
절대 우위 (I)	0303-79-9097	까나리(냉동)	0303-79-9020	복어(냉동)
	0301-99-9092	붕어(활어)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0307-51-0000	문어(산 것/신선, 냉장)
	0301-99-9091	노래미(활어)	0305-59-3000	명태(복어(건조))
	0301-99-9095	민어(활어)	0307-59-1020	낙지(냉동)
	0303-79-6000	조기(냉동)	0302-69-9090	기타 어류(신선, 냉장)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306-14-3000	꽃게(냉동)
	0301-99-9050	농어(활어)	0303-79-9099	기타 어류(냉동)
	0301-92-9000	뱀장어 기타(앵귤라종 (활어))	0302-69-3000	갈치(신선, 냉장)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0306-13-1000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0303-79-3000	갈치(냉동)		
	1604-19-9090	기타 어류(통조림 외 조 제품)		
	0304-20-9000	기타 어류 피레트(냉동)		

표 3-6 계속

그 룹	상대단가 변화(2000-03년)			
	상승(1)		하락(2)	
우위 개선 (II)	0301-99-4000	돔(활어)	0303-79-9091	아귀(냉동)
	0304-90-1090	기타 연육(냉동)	0303-60-0000	대구(냉동)
	0307-59-1030	쭈꾸미(냉동)	1605-90-9010	조미오징어
	0306-13-9000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7-49-3000	오징어(건조)
	1605-20-909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우위 약화 (III)	1605-90-9090	기타 연체동물(밀폐용기 이외)	0303-39-0000	기타 넙치류(냉동)
	1604-19-9010	쥐치포(통조림 외 조제품)	0306-24-1090	기타 게(신선, 냉장)
			0303-74-0000	고등어(냉동)
			0303-79-9096	가오리(냉동)
			0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 제외)
절대 열위 (IV)	0303-79-9093	홍어(냉동)	0303-79-9060	실장어(앵글라중, 활어)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냉동))	0303-79-1000	임연수어(냉동)
			0304-90-1010	명태(냉동)
			0302-69-1000	명태(신선, 냉장)
			1605-90-9030	콜뱅이(기타 조제)

주: 1. 200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없었던 3개 품목은 평가하지 않았음.

2.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상대단가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

특히 점유율 40% 이상의 절대우위(I)에 있으면서도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I-1)품목이 13개에 달하였는데 조기(냉동)와 갈치(냉동) 등 최대 수입품목에서 중국산은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냈으며, 절대우위이면서 상대단가가 하락한 경우(I-2)에도 대체로 상대단가는 미세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마. 조정관세대상품목: 일본산과 중국산 경쟁력

한국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중 2004년 중 수입실적이 있었던 12개

수산물의 경우,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64.4%로 가장 높았던 돔(활어)를 제외한다면 모든 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이었다.

표 3-7. 한국 조정관세품목의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

HSK	품 명	수입 규모 (2004년, 천 달러)	한국시장 점유율(%)				상대단가지수			
			일본산		중국산		일본산		중국산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0301929000	뱀장어(활어)	26,971	0.4	-	26.5	69.5	97.5	-	87.4	95.1
0301994000	돔(활어)	25,345	97.2	64.4	2.8	35.4	101.3	107.2	69.8	89.0
0301999050	농어(활어)	36,257	44.3	6.1	55.7	93.9	107.8	112.0	94.5	99.3
0301999095	민어(활어)	13,670	-	-	-	100.0	-	-	-	100.0
0303791000	명태(냉동)	135,533	29.3	10.2	0.1	38.9	111.3	72.5	125.2	287.3
0303798000	꽂치(냉동)	27,345	3.5	19.6	69.8	2.3	66.4	109.8	109.5	108.9
0303799093	홍어(냉동)	19,275	0.4	0.1	1.6	0.5	130.4	57.3	90.9	66.2
0303799095	민어(냉동)	3,882	0.0	0.2	29.3	19.7	156.9	279.2	167.6	205.8
0306139000	새우(냉동)	64,309	0.1	0.1	4.6	12.1	136.7	23.2	39.6	51.2
0306233000	새우(염장 등)	14,144	0.0	0.0	97.4	84.7	194.7	93.1	100.1	103.9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042	0.9	1.6	12.3	8.1	247.8	72.6	110.4	183.8
0307591020	낙지(냉동)	63,278	0.7	0.7	98.4	84.2	129.9	114.2	99.8	99.2

특히 2000~03년 중 한때 30~50%까지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일본산 농어(활어), 명태(냉동) 등의 경우 그동안 대체로 점유율이 하락하여 2004년 중에는 각각 6.0%와 1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4년의 경우 꽂치(냉동)는 19.6%로 높아졌지만, 그밖의 품목들은 1% 전후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조정관세대상품목 중 한국시장점유율이 6% 이상 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상대단가지수는 2004년 중 명태(냉동)가 72.5로 100보다 낮았지만, 다른 품목들은 100을 넘었으며, 그 수준도 2000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일본의 66개 주요 수입수산물품목(HS 9단위)의 국별 점유율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면, 5) ‘절대우위(I)’그룹에 속하는 품목 수는 한국산 11개, 중국산은 12개였다. 한국의 경우 11개 중에서 일본의 50대 수입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대구 및 명태 알(조제품)과 기타 어류(활어) 등 2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개 품목은 한국의 대일 수출 30대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이었다.

표 3-8.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점유율

	구 분		한국산 품목 수	중국산 품목 수
	2003년 수준	2000~03년 변화		
절대우위(I)	40% 이상	-	11	12
우위개선(II)	1~40%	상승	6	22
우위약화(III)	1~40%	하락	17	9
절대열위(IV)	1% 미만	-	32	23

중국의 경우 눈다랑어, 기타 어류조제품(통조림), 기타 연체류(조제품), 게(조제품) 등 7개의 품목이 일본수입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열위(IV)’그룹으로 구분되는 품목 수는 한국산이 32개 품목이었으며, 중국산은 23개 품목이었다.

5) 주요 66개 품목은 ① 2002년 기준으로 일본시장에서 수입액이 큰 상위 50대 수입수산물품목과 ②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 수출규모가 큰 30대 수산물품목(그 중 14개는 상위 50대 품목에 해당)으로 선정되었다(김남두 2004). 이 66개 품목의 수입액이 2002년 일본 수산물 총수입액의 84.4%를 차지하였다.

표 3-9. 일본의 주요 수입수산물

HS 코드	품목명	HS 코드	품목명
0306.13-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7.99-121	Mongo ika(0307.41-110 제외)(냉동)
0303.44-000	눈다랑어(냉동)	0302.35-000	참다랑어(신냉)
1604.19-010	뱀장어조제품(통조림 포함)	0307.91-430	성게(신냉)
0304.20-099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0304.90-095	어육(Itoyori)(냉동)
0303.80-020	어란(명태, 대구)(sodhed)	0303.79-097	sable fish(냉동)
0307.59-100	문어(냉동)	0303.31-000	넙치(냉동)
2301.20-01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0306.11-000	닭새우류, 기타 가재(냉동)
0306.14-020	대게(냉동)	0305.20-010	어란(청어)(건조, 훈제, 염장. 염수장)
1604.19-090	기타 어류 조제품(통조림 포함)	0301.99-290	기타 어류(활어)
0304.90-013	명태연육(냉동)	1604.30-010	연어알(ikura)
0304.90-099	기타 어육(냉동)	0306.24-120	대게(활, 신냉)
0303.11-000	홍연어(냉동)	1604.16-000	멸치조제품(통조림 포함)
0303.42-000	황다랑어(냉동)	0303.79-096	불락(냉동)
0303.21-000	송어(냉동)	0306.24-110	왕게(활, 신냉)
0303.74-000	고등어(냉동)	0307.91-460	바지락(활, 신냉)
0306.14-010	왕게(냉동)	0303.39-000	기타 넙치류(냉동)
1605.90-294	기타 연체류(조제품)	1604.14-092	참치(통조림)
0302.32-000	황다랑어(신냉)	0307.99-149	기타 연체류 및 수생동물(냉동)
7101.21-120	양식 백, 흑진주(비가공)	0304.20-091	기타 다랑어(피레트)(냉동)
1605.20-029	새우와 보리새우(조제품)	0307.91-491	기타 연체류(활, 신냉)
0307.49-190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0303.79-021	전갱이(냉동)
0303.79-099	기타 어류(냉동)	0307.10-100	굴(활, 신냉, 냉동)
0303.19-010	은연어(냉동)	1212.20-131	투스(신냉, 냉동, 건조)
1605.20-011	새우와보리새우(자숙)(신냉, 냉동)	1212.20-133	미역(건조)
1605.10-029	게(조제품)	0304.10-299	기타 어육(신냉)
0304.20-092	참다랑어(피레트)(냉동)	0305.20-020	어란(대구)(건조, 훈제, 염장. 염수장)
0303.46-000	남방참다랑어(냉동)	0307.91-420	피조개(활)
0301.92-200	뱀장어(앵겔라종)(활어)	1302.31-000	한천
0302.34-000	눈다랑어(신냉)	0307.91-470	민물조개(활, 신냉)
0304.20-010	청어, 대구, 명태, 방어, 고등어, 전갱이, 콩치(피레트)(냉동)	1212.20-135	미역(상온 보존)
0302.12-020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냉)	2106.90-298	기타 해초류와 조류(-297 제외)(조제)
1604.20-014	대구, 명태, 민대구알(조제품)	0307.99-231	성게(활, 신냉, 냉동 이외)
1605.90-219	갑오징어, 오징어(조제품)	1212.20-110	김(430평방cm/piece 이하)(신냉, 냉동, 건조)

시장점유율이 1~40%의 경우 점유율이 상승한 ‘우위개선(Ⅱ)’그룹은 한국산 6개, 중국산은 22개였다. 점유율이 하락한 ‘우위약화(Ⅲ)’그룹은 한국산은 17개였으며 중국산은 9개에 불과하였다.

요약하면 한국 수산물의 일본시장점유율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에서 중국에 급속히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일본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평균 수입단가에 대한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상대단가를 나타내는 상대단가지수를 살펴보면, 검토 가능한 53개 한국산 수산품목 중 2000~03년 중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23개였으며, 하락한 품목은 30개였다.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검토 가능한 총 58개 품목 중 30개가 상승하였으며 28개 품목은 하락하였다.

요약하면 한국산 수산물은 많은 품목에서 상대단가가 하락한 반면 중국산 수산물은 더 많은 품목의 상대단가가 상승하였다.

표 3-10.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산 수산물의 상대단가지수

구 분		한국산 품목 수	중국산 품목 수
2000~03년 변화	2003년 수준		
상승	100 이상	18*	10
	100 미만	5	20
하락	100 이상	16	15
	100 미만	14	13

주: 품목별 일본의 평균수입단가를 100으로 하여 산출한 상대단가지수.

* 시장점유율이 100%인 1212.20.110품목을 포함한 수치.

한편 상대단가지수의 2003년 수준을 보면, 한국산의 경우 총 53개 품목 중 34개가 100(해당 품목의 일본의 평균수입단가)을 상회하였으며, 19개 품목은 100보다 낮았다.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평균수입단가보다 높은 단위가격 품목은 25개였으며, 보다 낮은 단위가격 품목은 33개로 나타났다.

한국산의 상대단가지수 상승(하락)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 ① 상대단가지수의 상승은 한국산 수산물의 상대적인 가격상승으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 경우 상대단가지수의 상승은 한국산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의미하며 시장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② 상대단가지수의 상승은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 등 비가격경쟁력의 개선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산 상대단가지수의 상승은 시장점유율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수입시장에서 중국산과 한국산의 수입단가를 비교하는 ‘대중국 상대단가지수’를 보면, 검토 가능한 46개 품목 중 14개 품목은 2003년의 이 지수가 10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32개 품목은 100을 상회하였다.

표 3-11.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대중국 상대단가지수

구 분		한국산 품목 수
2000~03년 변화	2003년 수준	
상승	100 이상	18
	100 미만	6
하락	100 이상	14
	100 미만	8

주: 품목별로 중국산 수입단가를 100으로 하여 한국산의 수입단가를 지수화한 수치.

표 3-12.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단가 비교

HS 코드	품목명	대중국 상대단가치수	2000~03년 변화 방향*
0307.99-121	Mongo ika(0307.41-110 제외)(냉동)	45.9	↓
0307.91-491	기타 연체류(활, 신냉)	53.6	↓
0306.14-020	대게(냉동)	61.2	↑
1605.10-029	게(조제품)	67.6	↓
0303.42-000	황다랑어(냉동)	69.7	↑
0307.59-100	문어(냉동)	75.9	↓
0307.99-149	기타 연체류 및 수생동물(냉동)	80.8	↓
0306.14-010	왕게(냉동)	82.0	↓
0305.20-020	어란(대구)(건조, 훈제, 염장, 염수장)	85.4	↑
0304.20-091	기타 다랑어(피레트)(냉동)	86.9	↑
0303.80-020	어란(명태, 대구)(sodhed)	88.9	↓
0304.20-010	청어, 대구, 명태,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정강이, 꽁치(피레트)(냉동)	89.9	↓
0303.31-000	넙치(냉동)	94.5	↑
0304.20-099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97.8	↑
0307.49-190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102.5	↑
0301.99-290	기타어류(활어)	106.6	↓
1604.14-092	참치(통조림)	109.7	↓
1604.20-014	대구, 명태, 민대구알(조제품)	110.4	↓
0303.44-000	눈다랑어(냉동)	111.8	↓
2301.20-01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116.7	↑
0303.79-096	볼락(냉동)	118.3	↑
0303.39-000	기타 넙치류(냉동)	122.6	↓
1302.31-000	한천	122.9	↓
0304.10-299	기타 어육(신냉)	136.2	↑
7101.21-120	양식 백, 흑진주(비가공)	142.5	↓
0307.91-430	성게(신냉)	143.5	↑
0307.91-420	피조개(활)	151.4	↑
0307.10-100	굴(활, 신냉, 냉동)	152.3	↓

표 3-12 계속

HS 코드	품목명	대중국 상대단가지수	2000~03년 변화방향*
1604.19-090	기타 어류조제품(통조림포함)	158.2	↑
0307.99-231	성게(활, 신냉, 냉동 이외)	165.1	↓
0304.90-013	명태연육(냉동)	166.7	↑
1605.90-219	갑오징어, 오징어(조제품)	178.5	↑
1212.20-135	미역(상온보존)	179.6	↑
1212.20-133	미역(건조)	182.3	↑
1212.20-131	투스(신냉, 냉동, 건조)	185.7	↑
0303.79-099	기타 어류(냉동)	192.3	↓
0303.79-021	전갱이(냉동)	194.3	↑
0304.90-099	기타 어육(냉동)	194.7	↑
0303.46-000	남방참다랑어(냉동)	201.6	-
1604.16-000	멸치조제품(통조림포함)	204.8	↑
1605.20-029	새우와 보리새우(조제품)	221.0	↓
0303.74-000	고등어(냉동)	232.0	↓
0307.91-460	바지락(활, 신냉)	232.9	↑
0306.13-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246.0	↑
1605.90-294	기타 연체류(조제품)	293.6	↓
0303.11-000	홍연어(<i>Oncorhynchus nerka</i>)(냉동)	320.0	-
2106.90-298	기타 해초류와 조류(-297 제외)(조제품)	372.7	↓
0307.91-470	민물조개(활, 신냉)	593.5	↑

주: * 변화방향 ↓는 2000~03년 중 지수가 하락하였음을 그리고 ↑는 상승하였음을 의미함. (-)는 2003년에만 있어 변화방향을 정의할 수 없음.

다.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일본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지수의 수준 및 변화의 방향을 결합하여 한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평가하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단가 접유율	상대단가 변화(2000~03년)			
	상 승		하 락	
절대 우위 I	1212.20-110	김(430평방cm/piece 이하) (신냉등)	0307.10-100	굴(활, 신냉, 냉동)
	0304.10-299	기타 어육(신냉)	0307.99-231	성게(활, 신냉, 냉동 이외)
	2106.90-298	기타 해초류와 조류(-297 제외)(조제)	0301.99-290	기타 어류(활어)
	1212.20-131	투스(신냉, 냉동, 건조)	0307.91-491	기타 연체류(활, 신냉)
	0304.20-091	기타 다랑어(피레트)(냉동)	1604.20-014	대구, 명태, 민대구알(조제품)
	0307.91-420	피조개(활)		
우위 개선 II	0305.20-020	어란(대구)(건조, 훈제, 염 장, 염수장)	0307.91-460	바지락(활, 신냉)
	0303.79-021	전갱이(냉동)	0303.74-000	고등어(냉동)
	0302.35-000	참다랑어(신냉)	0306.24-110	왕게(활, 신냉)
우위 약화 III	1212.20-135	미역(상온 보존)	0303.42-000	황다랑어(냉동)
	0307.91-470	민물조개(활, 신냉)	0303.44-000	눈다랑어(냉동)
	1302.31-000	한천	1605.10-029	게(조제품)
	1212.20-133	미역(건조)	0303.46-000	남방참다랑어(냉동)
	1604.16-000	멸치조제품(통조림 포함)	0307.99-149	기타 연체류 및 수생동물 (냉동)
	1605.90-219	갑오징어, 오징어(조제품)	1605.90-294	기타 연체류(조제품)
	0304.90-099	기타 어육(냉동)	0303.79-099	기타 어류(냉동)
	0307.91-430	성게(신냉)	0304.20-092	참다랑어(피레트)(냉동)
	1604.19-090	기타 어류 조제품 (통조림 포함)		

표 3-13 계속

단가 접유율	상대단가 변화(2000-03년)			
	상 승		하 락	
절대 열위 IV	0304.20-099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0306.24-120	대게(활, 신냉)
	0307.49-190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0307.99-121	Mongoika(0307.41-110 제외) (냉동)
	0303.31-000	넙치(냉동)	0306.14-010	왕게(냉동)
	0306.13-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6.14-020	대게(냉동)
	0303.79-096	볼락(냉동)	0304.20-010	청어, 대구 등(피레트)(냉동)
			1604.14-092	참치(통조림)
			0303.39-000	기타 넙치류(냉동)
			2301.20-01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7101.21-120	양식 백, 흑진주(비가공)
			0307.59-100	문어(냉동)
			0304.90-013	명태연육(냉동)
			1605.20-029	새우와 보리새우(조제품)
			0303.80-020	어란(명태, 대구)(sodhed)
		0303.11-000	홍연어(냉동)	

주: 1. 2003년 중 대일 수출실적이 없어 단가비교가 불가능한 13개 품목은 평가하지 않았음.
 2.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상대단가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

‘I-상승’의 경우는 절대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므로 품질개선 등으로 비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품목들이라 할 수 있는바 김(건조), 김(조제품), 톳, 기타 다랑어 및 피조개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 품목들은 모두 상대단가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들이다.

‘I-하락’의 경우는 상대단가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40%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 수준을 유지하는 절대우위품목으로서, 굴, 기타 어류(활어), 기타 연체류(활, 신냉) 등이 속한다.

‘II-상승’은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점유율도 상승하는 품목으로서 대구어란, 전갱이(냉동), 참다랑어(신냉) 등 3개 품목이 이에 속한다.

이 중 대구어란과 참다랑어(신냉)의 경우 상대단가지수가 100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비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I-하락’은 상대단가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은 상승하는 품목들로서 가격경쟁력 개선이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바지락(활, 신냉), 고등어(냉동) 및 왕게 등이 이에 속한다.

‘III-상승’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즉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일본 수입시장에서 우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9개 품목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멸치 조제품 한 품목을 제외한 8개 품목, 즉 미역, 민물조개, 한천, 건조미역, 갑오징어·오징어 조제품, 기타 어육(냉동), 성게(신냉), 기타 어류 조제품 모두 2003년에 상대단가지수가 100을 상회한다.

‘III-하락’은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에 비가격경쟁력에서 상당한 약화를 겪으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냉동 다랑어, 게, 기타 연체류의 조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IV에는 1%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열위품목들이 포함되는데, 특히 ‘IV-하락’에 속하는 품목은 상대단가지수 하락과 시장점유율 감소를 경험한 매우 낮은 경쟁력의 품목이다.

한편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점유율과 대중국 상대단가지수의 변화를 고려한 품목별 경쟁력 구분은 [표 3-14]에 나타나 있다.

표 3-14.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대중국 상대단가지수)

구 분	대중국 상대단가 변화(2000-03년)			
	상승		하락	
I 절대 우위	0304.10-299	기타 어육(신냉)	0307.10-100	굴(활, 신냉, 냉동)
	1212.20-131	투스(신냉, 냉동, 건조)	2106.90-298	기타 해초류와 조류(-297 제외)(조제)
	0304.20-091	기타 다랑어(피레트)(냉동)	0307.99-231	성게(활, 신냉, 냉동 이외)
	0307.91-420	피조개(활)	0301.99-290	기타 어류(활어)
			0307.91-491	기타 연체류(활, 신냉)
		1604.20-014	대구, 명태, 민대구알(조제품)	
II 우위 개선	0305.20-020	어란(대구)(건조, 훈제, 염장, 염수장)	0303.74-000	고등어(냉동)
	0303.79-021	전갱이(냉동)		
	0307.91-460	바지락(활, 신냉)		
III 우위 약화	1212.20-135	미역(상온 보존)	1302.31-000	한천
	0307.91-470	민물조개(활, 신냉)	0303.44-000	눈다랑어(냉동)
	0303.42-000	황다랑어(냉동)	1605.10-029	게(조제품)
	1212.20-133	미역(건조)	0307.99-149	기타 연체류 및 수생동물(냉동)
	1604.16-000	멸치조제품(통조림 포함)	1605.90-294	기타 연체류(조제품)
	1605.90-219	갑오징어, 오징어(조제품)	0303.79-099	기타 어류(냉동)
	0304.90-099	기타 어육(냉동)		
	0307.91-430	성게(신냉)		
	1604.19-090	기타 어류조제품(통조림 포함)		
IV 절대 열위	0304.20-099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0307.99-121	Mongoika(0307.41-110 제외)(냉동)
	0306.14-020	대게(냉동)	0306.14-010	왕게(냉동)
	0307.49-190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0304.20-010	청어, 대구 등(피레트)(냉동)
	0303.31-000	넙치(냉동)	1604.14-092	참치(통조림)
	0306.13-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3.39-000	기타 넙치류(냉동)
	0303.79-096	볼락(냉동)	7101.21-120	양식 백, 흑진주(비가공)
	2301.20-01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0307.59-100	문어(냉동)
	0304.90-013	명태연육(냉동)	1605.20-029	새우와 보리새우(조제품)
			0303.80-020	어란(명태, 대구)(sodhed)

주: 1. 2003년 중 한국산의 대일 수출실적이 없거나 혹은 중국산의 대일 수출실적이 없는 20개 품목(단가 비교 불가능)은 평가하지 않았음.

2.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대중국 상대단가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

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수산물은 2003년의 경우 절대우위에 속하는 품목이 12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품목(I-상승)이 8개에 달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우위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1~40%인 중국산 품목 중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품목, 즉 우위개선(II) 품목이 무려 22개에 달하여 한국산의 경우 6개 품목과 큰 대조를 이루었으며, 중국산의 우위약화(III) 품목 수는 9개에 불과하였다.

절대우위에 속하는 중국산 품목 수는 IV에 속하는 15개 품목과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8개 등 총 23개로서 우리나라의 32개보다 훨씬 적었다.

일본 수입시장에서 상대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58개 중국산 수산물 중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인 품목은 33개, 100을 상회하는 품목은 25개였으며, 특히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9개 품목의 경우 상대단가가 상승되었으며,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이면서 상대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상대단가의 상승과 우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II-1)에도 총 11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이면서 역시 가격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의 여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일본의 IQ 대상품목: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일본이 한국산 어패류와 해초류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쿼터(Import Quota, IQ)의 대상품목 중 한국산의 수입실적이 있었던 품목은 1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분석대상 66개 품목에 포함된 것은 4개에 불과했다.

표 3-15.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그룹	상대단가 변화(2000~03년)			
	상승		하락	
I 절대 우위	1212.20-133	미역(건조)	1604.19-010	뱀장어 조제품(통조림 포함)
	1604.19-090	기타 어류 조제품(통조림포함)	0304.20-010	청어, 대구 등(피레트)(냉동)
	1605.90-219	갑오징어, 오징어(조제품)	0305.20-020	어란(대구)(건조, 훈제, 염장 등)
	1212.20-135	미역(상온 보존)	1605.10-029	게(조제품)
	1605.90-294	기타 연체류(조제품)		
	1604.20-014	대구, 명태, 민대구알(조제품)		
	0307.91-420	피조개(활)		
0307.91-470	민물조개(활, 신냉)			
II 우위 개선	0304.20-099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0304.90-099	기타 어육(냉동)
	0301.99-290	기타 어류(활어)	1212.20-131	툰(신냉, 냉동, 건조)
	1605.20-029	새우와 보리새우(조제품)	0301.92-200	뱀장어(앵귤라종)(활어)
	0303.44-000	눈다랑어(냉동)	0303.39-000	기타 넙치류(냉동)
	1604.30-010	연어알(Ikura)	0307.59-100	문어(냉동)
	1302.31-000	한천	0307.91-430	성게(신냉)
	0306.13-000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0307.99-121	Mongoika(.41.110제외)(냉동)
	1605.20-011	새우와 보리새우(자숙)(신냉냉동)	1604.16-000	멸치조제품(통조림 포함)
	0303.79-021	전갱이(냉동)	0303.42-000	황다랑어(냉동)
	2106.90-298	기타해초류, 조류(.297제외)(조제)	0306.14-020	대게(냉동)
0303.74-000	고등어(냉동)	0303.31-000	넙치(냉동)	
III 우위 약화	0307.49-190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0307.99-149	기타 연체류 및 수생동물(냉동)
	0303.79-099	기타 어류(냉동)	0305.20-010	어란(청어)(건조, 훈제, 염장 등)
	0307.10-100	굴(활, 신냉, 냉동)	0307.91-460	바지락(활, 신냉)
			0304.20-091	기타 다랑어(피레트)(냉동)
			0303.79-096	불락(냉동)
IV 절대 열위	0307.99-231	성게(활, 신냉, 냉동 이외)	0304.10-299	기타 어육(신냉)
	0303.19-010	은연어(냉동)	2301.20-01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0307.91-491	기타 연체류(활, 신냉)	0303.21-000	송어(냉동)
	1604.14-092	참치(통조림)	0304.90-095	어육(Itoyori)(냉동)
	0303.79-097	은대구(sable fish)(냉동)	0303.80-020	어란(명태, 대구)(sodhed)
	7101.21-120	양식 백, 흑진주(비가공)	0304.90-013	명태연육(냉동)
	0302.32-000	황다랑어(신냉)	0303.11-000	홍연어(냉동)
	0302.34-000	눈다랑어(신냉)		

주: 1. 2003년 중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실적이 없어 단가비교가 불가능한 8개 품목은 평가하지 않았음.

2.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상대단가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

마른 김, 조미 김 등은 시장점유율이 높았고, 냉동 고등어와 청어·대구 등의 피레트(냉동)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았으며 상대단가지수도 하락하였다.

66개 주요 품목 외의 IQ 대상품목 중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품목으로는 청어(신선냉장), 고등어(신선냉장), 방어(신선냉장), 개이지살(신선냉장) 등이었는데, 이 품목들의 경우 한국산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시마 등 기타 해초류와 조류도 한국산이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이 품목들은 시장점유율이 워낙 높아서 일본의 평균수입단가와 한국산 단가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가격비교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만 청어, 대구, 명태, 방어 등의 활어(0301), 피레트(0304), 건조 염수장(0305) 및 냉동 가리비, 개이지살(냉동), 갑오징어 및 오징어(0307. 99-220)의 경우에는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한국산의 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거나 매우 낮은 실정이다. IQ 대상 7개 어종의 경우 한국산의 점유율은 거의 0%에 가까웠으며, 따라서 이 품목들 역시 가격경쟁력의 검토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요약하면 일본 IQ 대상품목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력 상황은 김과 다시마 등 일부 품목은 한국산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중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이며, 정어리(냉동), 고등어(냉동) 등은 제3국의 압도적인 점유와 한국산과 중국산의 매우 낮은 점유율이 특징이다.

표 3-16. 일본 IQ 품목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단위: 천 달러)

HS	품목명	수입액*	시장점유율(%)				상대단가지수			
			한국산		중국산		한국산		중국산	
			2000	2003	2000	2003	2000	2003	2000	2003
0301-99-210	청어, 대구, 명태, 민대(활어)	12,958	24.1	0.7	73.3	99.3	97.9	78.9	100.9	100.2
0302-40-000	청어(신냉)	522	90.5	100.0	-	-	139.2	100.0	-	-
0302-61-010	정어리(Sardinops spp)(신냉)	115	-	-	-	-	-	-	-	-
0302-64-000	고등어(신냉)	557	100	100	-	-	100.0	100.0	-	-
0302-69-011	방어(신냉)	715	99.9	97.7	-	-	99.9	98.6	-	-
0302-69-019	기타 어류(청어, 고등어 등 신냉)	59	32.7	4.0	-	-	42.3	484.4	-	-
0303-71-010	정어리(Sardinops spp)(냉동)	21,790	0.4	-	2.3	0.9	106.5	-	254.7	52.1
0303-74-000	고등어(냉동)	208,792	1.4	3.4	0.6	1.7	323.3	284.1	51.9	122.7
0304-20-010	청어, 대구, 명태(피레트)(냉동)	149,069	1.9	0.5	49.9	82.0	113.1	91.0	104.7	101.9
0304-90-020	방어, 고등어 등(어육)(냉동)	4,407	-	0.5	60.4	65.5	-	185.7	118.4	114.0
0305-30-020	청어, 대구 등 피레트(건조등)	184	-	-	98.0	98.4	-	-	98.6	98.9
0305-59-020	청어, 대구, 명태, 방어 등(건조)	1,169	-	-	26.6	28.3	-	-	213.6	127.4
0305-63-000	멸치(염장, 염수장)	56	-	-	-	100	-	-	-	100.0
0307-29-100	가리비(냉동)	2,468	-	-	93.9	94.8	-	-	101.6	97.0
0307-49-200	갑오징어, 오징어(활, 신냉 외)	27,020	2.0	0.3	35.2	36.7	78.6	73.5	62.3	62.0
0307-91-200	개아지살(신냉)	3,326	100	99.8	-	-	100.0	100.3	-	-
0307-99-110	개아지살(냉동)	4,976	25.0	2.7	55.0	87.6	147.5	146.1	106.2	100.1
0307-99-220	갑오징어, 오징어(0307.49.200 제외(활, 신냉, 냉동 이외))	8,680	3.0	3.0	96.3	95.8	104.9	124.3	99.9	99.3
1212-20-110	김(430평방cm/piece 이하)(신냉, 냉동, 건조)	6,410	100	100	-	-	100	100	-	-
1212-20-139	기타 해초류와 조류(신냉, 냉동, 건조)	16,246	21.3	20.7	64.0	61.6	123.0	101.8	97.9	87.7
2106-90-298	기타 해초류와 조류(-297 제외)(조제품)	7,652	77.8	86.0	0.3	4.3	123.7	159.5	24.7	42.8

주: * 2003년 수입액임.

3. 중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산물 수입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품목도 비교적 단순하다. 즉 중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한류성 어류와 사료용 어분, 일부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수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기준으로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HS 8자리 기준 품목은 [표 3-17]에 제시된 32개 품목이었으며, 32개 품목이 전체 수산물 수입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다. 특히 사료용 어분과 냉동 대구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전체 수산물 수입의 약 25%씩 차지하는 등 몇 개 품목에 심하게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3%이지만, 중국의 32개 주요 수입 품목에서는 그 비중이 2.53%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32개 수입수산물의 평균수입가격에 비하여 한국산 수산물 가격의 단가지수는 165.73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의 평균수입가격에 비해서도 17%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대단가지수 117.05). 물론 한국산과 일본산 수산물의 품목 구성이 다르므로 가격경쟁력의 지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품목별로 볼 때, 한국산의 점유율이 높았던 품목으로는 기타 달팽이(49.92%), 갑오징어와 오징어(19.05%), 냉동 참치(13.60%)를 비롯하여, 냉동 어육(6.10%), 냉동 가자미(4.28%), 신선 냉장 피레트(3.58%), 냉동 간장과 어란(3.21%) 등이었

는데 이들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전체 점유율(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3-17.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품목 분류: HS 8자리)

순위	HS	품목명	2000년		2004년	
			금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금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1	23012010	사료용 어분	572,314	0.48	760,883	0.68
2	03036000	냉동 대구	339,300	0.87	722,589	1.24
3	03037990	기타 냉동 어류	-	-	225,681	1.12
4	03074900	갑오징어와 오징어(냉동 건조)	132,088	0.59	168,304	0.89
5	03038000	냉동 간장과 어란	38,239	7.16	101,126	7.97
6	03033200	냉동 가자미	54,307	0.77	96,602	1.08
7	03031900	기타 태평양 연어(냉동)	13,778	0.73	93,903	1.24
8	03061319	냉동 새우(탈각 안 한 것)	79,430	1.94	86,290	1.98
9	03079199	수생 무척추 동물(활, 신냉)	1,097	2.16	83,755	2.63
10	03061490	기타 냉동 게	70,307	4.13	78,508	3.56
11	03062492	민물게(냉동 안 함)	76	1.38	70,589	8.01
12	03037400	냉동 고등어	15,815	0.39	67,257	0.92
13	03026990	신냉 어류	-	-	57,747	1.56
14	03037910	냉동 갈치	-	-	43,906	0.55
15	03035000	냉동 청어	11,373	0.29	34,506	0.36
16	03037200	냉동 해덕	3,450	1.36	29,042	1.65
17	03055920	건조 상어지느러미	25,508	5.53	27,468	5.76
18	03049000	냉동 어육	12,089	1.33	25,332	1.58
19	03061311	냉동 새우(탈각한 것)	16,507	2.83	24,670	3.24
20	12122090	조류 아닌 식용 해조류	9,433	0.29	23,871	0.41
21	03075900	냉동 넙치	13,687	2.14	21,588	3.03
22	03033100	문어(냉동 건조)	1,599	1.79	21,109	1.49
23	03076090	기타 달팽이	6,775	2.42	20,708	3.49
24	03042090	신냉 피레트	8,951	1.69	19,322	2.12
25	03021210	신냉 대서양 연어	5,893	4.57	15,626	4.49
26	03033900	냉동 광어	1,643	1.15	14,740	1.27
27	03061329	냉동 보리새우(탈각 안 한 것)	24,773	4.02	13,323	3.68
28	03034900	냉동 참치	128	1.33	11,989	3.02
29	03062190	냉동 닭새우 등	2,890	8.43	11,940	7.33
30	03037500	냉동 곱상어와 상어	7,125	1.96	11,387	2.46
31	16051000	가공 게	260	1.56	10,268	4.58
32	03062399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안 한 것)	9,694	2.58	10,008	4.02
		계	1,478,529	0.69	3,004,037	0.98

반면 중국의 최대 수입수산물인 사료용 어분의 한국산 점유율은 0.05%에 불과하였으며, 냉동 넙치, 수생무척추동물(활, 신냉), 기타 냉동 게,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청어, 문어, 기타 태평양연어의 경우 1%에도 미달하는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물 중에는 신냉 어류, 민물게(냉동하지 않은 것), 가공된 냉동 게, 냉동 해덕, 건조 상어 지느러미, 신냉 대서양 연어, 냉동 닭새우 등 한국에서 생산이 소비에 크게 못미치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에서의 단위당 가격은 대체로 중국 수입의 평균가격보다 높았는데, 식용해초류(624.88), 냉동 청어(277.74), 냉동 참치(221.35), 문어(냉동 건조)(271.39)의 경우 단가지수가 매우 높았으며, 기타 달팽이, 냉동 게, 냉동 새우, 냉동 광어 등의 경우에도 중국 수입 수산물 평균단가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냉동 대구, 냉동 고등어, 사료용 어분 기타 태평양 연어 등 단가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9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안 한 것) 그리고 냉동 넙치의 경우 단가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수입규모가 워낙 작아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한국 수산물의 중국 수입시장 경쟁력은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고 단위당 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특히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기타 달팽이, 냉동 오징어, 냉동 참치, 냉동 어육, 냉동 가자미의 경우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최근 들어 급속히 하락하여, 2004년에는 4.6%를 나타내 1999년의 20.6%의 1/4 수준에도 못미쳤다. 특히 중국의 주요 32개 품목만을 보면 3.39%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3-18. 한국산과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HS	한국산					일본산			
	금액	점유율	단가	단가 지수	상대단가 지수*	금액	점유율	단가	단가 지수
03026990	-	-	-	-	-	16	0.03	0.43	27.71
03031900	362	0.39	1.12	89.88	91.40	36,809	39.20	1.22	98.34
03033100	101	0.48	4.04	271.39	-	-	-	-	-
03033200	4,136	4.28	1.30	120.12	113.32	285	0.30	1.15	106.00
03033900	337	2.29	2.07	162.62	206.75	14	0.09	1.00	78.66
03034900	1,631	13.60	6.68	221.35	274.45	5,480	45.71	2.44	80.65
03035000	131	0.38	1.01	277.74	226.73	428	1.24	0.44	122.50
03036000	10,903	1.51	1.17	94.38	152.41	11,481	1.59	0.77	61.92
03037400	249	0.37	0.66	71.14	107.69	424	0.63	0.61	66.06
03037500	-	-	-	-	-	1,706	14.98	1.72	70.08
03037910	-	-	-	-	-	258	0.59	0.90	163.82
03037990	4,267	1.89	1.11	99.24	111.10	8,802	3.90	1.00	89.32
03038000	3,245	3.21	8.28	103.85	130.13	8,047	7.96	6.36	79.81
03042090	672	3.48	2.78	131.13	126.18	636	3.29	2.20	103.92
03049000	1,544	6.10	2.40	151.81	92.50	143	0.56	2.60	164.12
03055920	-	-	-	-	-	327	1.19	18.17	315.48
03061311	-	-	-	-	-	164	0.66	6.07	187.52
03061319	379	0.44	3.72	187.25	108.90	1,358	1.57	3.41	171.95
03061329	-	-	-	-	-	2,624	19.70	7.13	193.90
03061490	780	0.99	4.33	121.76	107.88	8,544	10.88	4.02	112.87
03062399	15	0.15	0.88	21.93	10.94	645	6.44	8.06	200.35
03074900	32,068	19.05	1.32	147.98	143.59	7,360	4.37	0.92	103.06
03075900	3	0.01	0.75	24.79	22.26	1,361	6.30	3.37	111.34
03076090	10,337	49.92	6.54	187.61	68.39	239	1.15	9.56	274.32
03079199	252	0.30	1.24	46.91	27.66	67	0.08	4.47	169.62
12122090	599	2.51	2.55	624.88	93.30	377	1.58	2.73	669.74
16051000	265	2.58	8.55	186.65	-	-	-	-	-
23012010	414	0.05	0.65	96.38	-	-	-	-	-
계	72,690	2.53	1.57	165.73	117.05	97,595	3.39	1.34	141.59

주: * 상대단가지수는 한국산 수산물 단위당 가격의 일본산 수산물 단가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을 의미함.

일본산 수산물로서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넘는 높은 품목으로는 냉동 참치(45.71%), 기타 태평양 연어(39.20), 냉동 보리새우(탈각하지 않은 것)(19.70), 냉동 곱상어 및 상어(14.98), 기타 냉동 계(10.88) 등이었으며, 그밖에도 냉동 간장과 어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하지 않은 것), 냉동 넙치, 갑오징어와 오징어, 기타 냉동 어류 등이 일본산의 중국 수입시장 평균점유율을 넘어서는 품목들이다.

일본도 중국의 주요 수입수산물품목인 사료용 어분 등의 점유율이 0이거나 매우 낮았다. 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이 0이거나 1% 미만인 품목이 16개나 되었다. 이는 32개 품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 수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단가지수는 141.59로서 중국 수입의 평균보다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산의 165.73보다는 낮았다. 특히 일본산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3개 품목인 냉동 참치, 기타 태평양 연어, 냉동 곱상어의 경우 단가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관세율

한국의 수산물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2004년의 경우 406개 품목이며, 수입관세율은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수산상품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는 3단계(5%, 10%, 20%)의 매우 단순한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가공상태에 따라 활어(10%), 신선·냉장 어류(20%), 냉동 어류(10%),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20%)으로 균등관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굴 치패 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와 20%의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된다.

표 4-1. 한국의 수산물 관세율 구조

(단위: 개, %)

관세율(%)	기본관세율	실행관세율	
3	5	5	
5	4	4	
8	24	23	
10	101	92	
14		2	
20	252	247	
25			1
30	7	7	5
40			2
45		13	
50	13		2
55			1
70			1
(품목 수)	(406)	(394)	(12)
평균관세율(%)	17.58	18.19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가공 식품류인 HS 16류는 20% 63개 품목, 30% 3개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공품 수입을 억제한다. 그러나 2단계의 단순한 세율구조를 가짐으로써 원자재용 수입수산물 가격의 급등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세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4년 수산물 실행관세율은 평균 18.19%로 기본관세율보다 1.1% 포인트 높다. 실행관세율의 구조를 살펴보면, 2~70%까지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기준상 고관세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5% 이상이 278개(전체 품목의 69%)이다. 25% 이상 품목도 33개(전체의 8%)이다.

한편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의 수입억제를 위하여 한국은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수산물의 경우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표 4-2]와 같다.

표 4-2. 한국의 수산물 조정관세

HS	품목명(규격)	기본세율	조정관세 세율	주요국 수입비중 (2002년, %)
0301 (활어)	뱀장어(실장어 제외)	10	30%, 1,908원/kg 중 고액	대만 57, 중국 36
	돔	10	50%, 3,658원/kg 중 고액	일본 77, 중국 23
	농어	10	50	중국 84, 일본 16
	민어(참조기, 부세 제외)	10	40	중국 100
0303 (냉동)	명태	10	30	러시아 88, 일본 6
	꽁치(학꽁치 제외)	10	40	대만 67, 일본 30
	홍어	10	30	칠레 48, 아르헨 18
	민어(참조기, 부세 제외)	10	70	기니 39, 중국 29
0306 (갑각류)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에 한함, 새우 살 제외)	20	30	태국 50, 필리핀 9
	새우젓(염장 또는 염수장)	20	55%, 363원/kg 중 고액	중국 83, 베트남 16
0307 (연체 동물 등)	오징어(냉동품) (연육 제외)	10	30	중국 49, 태국 29
	낙지(냉동한 것에 한함)	20	25%, 444원/kg 중 고액	중국 87, 베트남 10

자료: 재정경제부(2004),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나. 수입수산물 검사

수산물분야 비관세조치로는 수산물 수입검사제도, 이식용 수산물 검역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수입수산물 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국내 소비용, 수출용 및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산물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검사를 위탁받아 원료 및 단순가공수산물에 대해 검사하고, 조미·통조림품 등 고차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2조 제2항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희망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HACCP 제도 이행을 승인하는 자율적인 지정제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HACCP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HACCP 시행품목 및 업체 지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희망하는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하여 자율적 지정형태로 HACC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식용 수산물 검역제도는 외국에서 반입되는 이식용 수산물이 검역을 통하여 외래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산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담당한다. 이식승인대상 어종은 양식용과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이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이리도 바이러스 등 4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다.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

소비자에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는 1994년 1월에 의무화하였다.

1995년 1월에는 국산수산물에도 적용하였고, 1996년 1월에는 통조림, 병조림, 새우젓 등 15개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02년 1월에는 국산 활어, 뱀장어류·명태류 등 6개 조미품 및 조개젓·오징어젓·명란젓 등 8개 젓갈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에 대해 원료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가공과정과 유통판매과정을 거치면서 품질의 보전과 향상은 물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2001년 9월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조에 의하여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 전통식품을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⁶⁾ 위와 같이 국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직접적인 비관세장벽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산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하여 우수성을 확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입수산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장벽으로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2.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수입관세율

일본의 수산물 관세품목은 HS 9자리 기준으로 328개(2002년 기준)이며, 이 품목들의 기본관세율은 0~40%까지 19단계로 매우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다. 종량세 대상 2개 품목과 선택세(종량세와 종가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상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25개 품목은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

6) 종전에는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산물 품질인증, ②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③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3개 분야로 구분·운영되었다.

들의 평균관세율은 7.9%이다.

무관세 수산물 품목은 22개이며, 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103개로 가장 많고 10%가 74개 품목, 15%가 39개 품목이다. HS 9단위 기준 총 328개 품목 중 31개는 무관세이며, 가장 높은 빈도 수의 관세율 수준은 3.5%이며, 일부 품목에서는 7~10.5%로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

표 4-3. 일본의 수산물 기본관세율

관세율(%) \ HS	01류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	1	3	8	6	3		1			2	22
2.5			1	1							2
4.0			11				1				12
4.8								4			4
5.0			101		2						103
6.0			15					4			19
6.4								3			3
6.5								1			1
7.0		2									2
7.5			1								1
8.4									1		1
9.6								27			27
10.0			69	2			3				74
12.0			4					1			5
12.8								4			4
15.0			28		5		1	5			39
20.0				1							1
25.0									3		3
40.0					1						1
총량세					1	1	1				1
계(총량세 제외)	1	5	238	10	11	0	6	49	4	2	326

자료: www.apectariff.org/

나. 김 수입쿼터(IQ)

일본은 수입쿼터, 관세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수량 규제와 엄격한 검사·검역, 표준·인증제도, 행정지도,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유통 관행 등 비관세장벽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수입쿼터(import quota: IQ)는 수산물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김과 일부 어류에 대하여 한국산과 기타 101 개 국가산으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1959년부터 김을 IQ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산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적용하여 왔다. 1978~94년까지 일본의 김 생산량 증대 및 수입창구 단일화로 대일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1995년 양국 수산청장간 합의로 한국산 김의 수입을 재개한다. 한국은 김에 대한 수입쿼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1995년 이후 쿼터량은 매년 증가해 2004년의 경우 240만 속으로 결정되었으나, 일본의 김 시장규모(연 1억 속)에 비해 한국산 김의 쿼터량은 2004년도 기준 2.4%에 불과하여 기존거래업체의 주문량을 소화하기 힘든 것은 물론 신규거래 희망업체와의 거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표 4-4. 일본의 김에 대한 수입쿼터량 추이

(단위: 만 속)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쿼터량	20	33	40	58	69	120	150	180	210	240
입찰량	20	33	40	58	46	76	94	112	130	148
건조김	20	28	31	40	<수요자> 건조: 36.8 조미: 9.2	<수요자> 건조: 53.2 조미: 22.8	<수요자> 건조: 61 조미: 33	<수요자> 건조: 67 조미: 45	<수요자> 건조: 84.5 조미: 45.5	<수요자>
조미김	-	3	9	18	<상사> 18 <선착순> 5	<상사> 19 <선착순> 25	<상사> 24.2 <선착순> 31.8	<상사> 30.2 <선착순> 37.8	<상사> 36 <선착순> 44	<상사> 44 <선착순> 48

자료: 해양수산부 무역진흥담당관실

다. 기타 어패류에 대한 IQ

일본은 통상산업성 고시 170호(1996년 4월 30일)에 근거하여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건멸치, 가리비, 패주 등 9종의 어패류에 대해 ‘한국산’과 ‘한국을 제외한 기타 101개 국가산’의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입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101개 국가산’에 대해서 일본은 쿼터를 1982년 4,250만 달러에서 2001년 약 6억 달러로 꾸준히 증액하였고, 고등어, 전갱이(1997년), 가리비(1999년), 대구(2000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액할당제를 수량할당제로 전환하여 수입어종의 단가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 4천만 달러로 동결함으로써,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국에 비해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수산물 IQ 제도의 근거는 일본 국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일본은 이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잔존수입제한조치로 제시한다.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후 8년 이내 혹은 1995년 UR 협정 발효 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이 규정을 철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존하는 일본의 수산물 IQ 제도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

표 4-5. 일본의 어패류 9종에 대한 수입쿼터량 추이

(단위: 만 달러)

구 분		1982년	1983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국산	금액 할당	4,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금액 할당	4,250	6,250	30,200	17,300	18,000	2,400	4,900	2,550	2,600
101개 국가산	수량 할당(천 톤) (금액 환산)	-	-	276 (31,801)	319 (39,583)	345 (41,780)	430 (57,097)	440 (58,425)	445 (59,089)	476 (63,190)
	총할당	4,250	6,250	60,000	56,000	57,000	59,000	60,000	61,639	65,790

자료: [표 4-4]와 동일

라. 굴에 대한 위생검사

수산물 수입시 일본은 수입신고서를 관할 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생굴에 대해서는 한국의 양식조합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되지만, 증명서가 없을 경우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⁷⁾ 냉동 굴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키징리스트, Bill)와 각 수입시 실시하는 후생성의 마비성 패독 검사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1996년 5월 한국에서 수입한 패류에서 패독이 검출되자 한국산 패류에 대한 통관 전 패독 검사를 실시하다가, 그 후 양국간 협상으로 지정해역산 패류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부터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한국산 수입굴에서 패독이 검출되자 굴에 대해서는 매회, 홍합의 경우는 5회 수입마다 1회의 패독 검사를 받고 있다.

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일본산인 경우 생산된 수역 또는 지역의 명칭(육지 양식의 경우 양식장이 속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기재하며, 수역 명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업한 항구명 또는 어업한 항구가 속한 도도부현 명으로 수역 명칭을 기재할 수 있으나, 수입품은 원산지 국명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의 수산물 통관제도는 한국과 기타 모든 나라로 하는 2분류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7) 생굴의 경우 필요서류는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키징리스트, Bill)와 패독 증명서이다.

3.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에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11월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여 양허하였다. 중국의 수산물 관세율은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의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tariff escalation) 현상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WTO MFN 관세율은 대부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HS 0305와 HS 0306의 경우 16~18%대의 높은 수준이다. 최혜국(MFN)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산품목에서 40~9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진주(HS 7101)의 경우 100~130%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증치세(增值稅,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수산물의 경우 13% 혹은 17%가 적용된다.

4. 한 · 중 · 일의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한·중·일 3국의 수산물에 대한 MFN 관세율 수준을 비교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MFN 관세율의 전반적인 수준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다. 신선·냉장 어류(HS 0302), 신선·냉장 어육 피레트(HS 0304.10), 건조·훈제·염장 등 어류(HS 0305), 갑각류(HS 0306),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HS 0307), 해초류와 조류(HS 1212.20), 조제어류와 캐비아 등(HS 1604), 조제 갑각류와 연체동물 등(HS 1605)의 경우 한국에서는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한국은

관세율 수준이 10% 이내인 일본과 20% 이내인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어류 등의 엑기스와 즙(HS 1603.00)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30% 수준이어서 24.1%인 중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관세율은 HS 4자리 혹은 HS 6자리 품목군별로 3, 5, 8, 10, 20%로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품목군 내에서도 개별 품목별로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HS 0301~0307까지의 어류에 있어 일본과 중국은 어종별로 차별적인 관세율을 정하여 해당 어종의 국내 생산여건과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양식용 치어(HS 0301 중 일부), 성계(활)와 기타 수생동물(활)(HS 0307 중 일부), 산호·패각(HS 0508), 해면(HS 0509), 어류의 웨이스트와 부화용 알(HS 0511), 한천제조용 해초류(HS 1212.20.22), 사료용 어분(HS 2301.20의 일부) 등 상당 품목이 이미 무관세인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일부 양식용 치어(HS 0301 중 일부)와 양식·방류용 새우(HS 0306.22.111)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한국은 수산물에 대한 무관세품목이 전혀 없다.

한·중·일 3국의 수산부문 비관세장벽을 보면, 일본의 수입쿼터제와 한국의 조정관세가 주목된다. 일본은 김에 대한 수입쿼터와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등 어패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수산물 쿼터와 기타 101개 국가 수산물에 대한 쿼터를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WTO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수입급증 품목에 대하여 25~70%의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특히 중국산 수산물이 이 품목들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도 상당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은 장기간의 저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각국은 식품안전과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통관과정에서의 엄격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하며 각종 검사, 인증,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간 보호수준의 차이와 제도의 차이 때문에 심각한 통상장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6. 수산물 품목군별 WTO 관세율의 한·중·일 비교

(단위: %)

HS	일 본	한 국	중 국
0301	0, 1.7, 3.5, (10)*	10	0, 10.5, 21.3
0302	2, 2.5, 3.5, 5.6, (10)*	20	10, 12
0303	2, 2.5, 2.8, 3.5, 4, 6, (10)*	10	10, 12
0304	2, 2.5, 2.8, 3.5, 6, (10)*	20(신냉), 10(냉동)	13.3, 15
0305	2.8, 3.5, 7.5, 8.4, 10, 10.5,(15)*	20	12.5, 13.3, 16, 17.2, 18.8
0306	1, 2, 4, 5, 7	20, 14(기타 계)	0, 8, 14, 16.7, 17.2, 18, 18.8, 21.7
0307	0, 3.5, 5, 5.3, 7, 10, 10.5, (10, 15)*	20, 10(오징어류)	12, 16.7, 17.2, 19.6, 20
1212.20	0, 3.5, 10.5, (15, 40, 1.5엔/장)*	20(냉동10, 49.3)	20
1603.00	(9.6)**	30	24.1
1604	9, 11, (6.4, 9.6)**	20	5, 17.2
1605	5, 5.3, 6.7, 10, 10.5, (4.8, 6.5, 9.6)**	20	13, 15, 19
2106.90	17.5, (25)*	8	27.5
2301.20	0	5	2, 5
2309.90	0	5	7.4

주: () 안의 수치는 미양허품목의 일반관세율

* 수입쿼터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율

** 수입쿼터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관세율

0508(산호, 패각 등), 0509(해면), 0511.91(기타 어류생산물, 비식용), 1302.31(한천), 1504(어류 등의 유지 및 분획물), 1521.90(경납), 1603.00(어류 등의 엑기스와즙), 2106.90(조제 식용해초류), 2301. 20(사료용 어분 등), 2309.90(해서포유동물의 용해물, 조제사료)

제 5 장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파급효과와 대응

1. 수산부문 개방과 파급효과

가. 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3국의 입장

한·중·일 사이의 FTA가 추진되는 경우 어떤 내용의 자유화가 포함될 지를 사전에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수산부문의 경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3국 수산업의 구조와 국제경쟁력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부문의 이해득실이 너무나 뚜렷한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부문의 국제적 위상과 무역특화구조 그리고 국제경쟁력은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각국은 제조업과 농업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해득실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겠지만, 본 절에서는 수산부문의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만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각국의 입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1) 중국

한·중·일 FTA에서 수산부문이 전반적으로 개방될 경우, 세계 최대 수산물 수출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 시장과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한국시장으로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ASEAN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수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 수산물이 한국 및 일본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수산수입시장 확보를 위한 호기로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반면 일본은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관세율도 매우 낮으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중요한 품목에서는 수입쿼터(IQ)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위생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접한 국가들로부터 높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국제협상에서 자국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민감성과 취약한 구조를 이유로, 수산물을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산업을 농업과 함께 분류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 시장개방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특수성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일본이 체결한 기존 FTA에서 수산부문 양허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2002년 11월에 발효된 일본과 싱가포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JSEPA)⁸⁾에서 일본은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광공업품의 경우 전체 6,746개 품목 중 석유제품 일부, 석유화학제품 일부, 피혁 등 294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2,277개 품목 중에서 무관세품목에⁹⁾ 한정하여 486개 품목만을 양허하였다. 수산부문에서 일본은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의 선어(鮮魚)를 포함한 1,191개 품목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HS 03류 중에서 송어, 뱀장어, 잉어의 양식용 치어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5년 12월에 체결된 일본과 말레이시아간의 자유무역협정(JMEPA)에서도 수산부문은 일부 품목만이 양허된다. 수산부문 양허내용을 보면, ①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이행하는 방식(A)의 품목은 양식용 치어, 일부 냉동 갑각류 및 사료용 어분 등이며, ② 신선냉장 어류(HS 0302) 중 일부와 냉동 어류(HS 0302) 중

8) 양국간 협정의 정식명칭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SEPA)이다.

9) WTO에 무세로 양허한 품목과 실행관세율 0%이며 관세쿼터 등을 제외한 품목을 의미한다.

일부는 6회에 걸친 균등 인하 후 무관세로 하는 방식(B5)이며, ③ 건조 염장 염수장 어류(HS 0305) 중 일부와 일부 연체동물(0307)의 경우는 8회에 걸친 균등인하 후 무관세방식(B7)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그 외의 다수 수산품목은 JMEPA의 양허에서 제외되어 있다.

3) 한국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통상협상에서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등에 대한 입장은 일본과 유사하다. 다만 한국은 무역특화의 정도에서 중국과 일본처럼 양극단에 위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빠른 속도로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산부문 무역수지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수산업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중·일 FTA에 따른 한국 수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과 국내 생산능력 증대 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수산부문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을 담고 있는 GATT 제24조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괄하는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의 승인을 얻으려면 수산부문도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지금까지 추진한 FTA 협상에서의 입장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수산품목이 양허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관세인하 등 자유화의 추진일정에서도 수산부문은 농업과 함께 비교적 긴 자유화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일반균형모형의 효과 추정

FTA와 같은 광범위한 부문의 정책 변화를 수반하는 조치의 효과추정을 위해서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모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효과추정방법은 기준연도의 초기 균형상태와 FTA에 따른 충격이 가해진 후의 새로운 균형상태를 구하여 그 차이를 효과로 계산한다. CGE 모형을 통한 FTA의 효과 추정은 이 모형의 구조체계와 그 구조를 나타내는 모수 값과 그리고 FTA를 통하여 변화시키려는 각 부문의 정책변화를 나타내는 수치 가정 등에 따라 그 추정치가 많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상태를 나타내는 많은 국가와 많은 부문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문배 등(2004)은 1997년의 GTAP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2000년 한·중·일 수산물 교역데이터를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한·중·일 FTA가 한국 수산부문에 비교적 적은 폭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생산은 0.7% 정도 감소하고, 수출증대 2억 7,400만 달러와 수입증대 5억 4,400만 달러로 수산물 무역수지는 2억 7,100만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 만약 위 모형에 1997년 혹은 2000년 이후에 겪은 구조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한·중·일 FTA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생산과 무역부문 효과는 위의 추정치보다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특화상태를 볼 때, 한·중·일 FTA로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중국 수산물의 수입증대로 한국 수산업은 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상대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 수산물의 수출증대의 기회마저도 최근의 한국 어촌 실태, 즉 어업인들의 고령화 추세, 수산능력 감축과 어업자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한·중·일 FTA에 따

10) 주문배 외 (2004), pp. 99~109 참고.

라 한국 수산업은 상당 폭의 생산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CGE 모형의 경우 경제의 전 분야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를 망라하는 데이터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추정모형의 데이터가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외환금융위기 이전인 1997년 혹은 2000년 정도의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 한국 수산업의 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주요 품목의 무역효과 추정

FTA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수산물 관세철폐와 각종 무역장벽의 폐지가 한국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일본 교역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그리고 대중국 교역에서는 대폭적인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특화보다는 대중국 수입특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한국 수산물이 중국 수산물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수요가 어느 정도 증대된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한국 어업의 최근 실태, 즉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추세, 수산능력 감축과 어업자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수산물 생산 확대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산물 중에서 어류(HS 03류)에 비하여 수산가공품(HS 1604, HS 1605)의 경우는 생산 및 수출 확대가 다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의 해외수요와 국내공급 등을 감안한 수출함수 그리고 한국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관세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그 효과를 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주문배 등(2004)의 연구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 수산물의 대중국 및 대일본 상위 20대 수출품과 수입품을 선정하여, 한·중·일 FTA에서 수산부문이 자유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각각의 수입증대와 수출증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각국의 수입규모 상위 20대 품목의 수입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16%와 13% 정도 증가하고, 각국에 대한 수출규모 상위 20대 품목의 수출은 각각 37.5%와 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럴 경우 각각의 수출과 수입의 상위 20개 품목만을 고려했을 때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44백만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에도 기준연도를 2002년에서 2004년으로 바꿀 경우 수출금액 감소와 수입액 증가를 감안한다면, 무역수지 적자요인은 상당한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된다.

표 5-1.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주요 수산물의 교역효과*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대중국		대일본		합 계	
	2002년 실적	증가(%)	2002년 실적	증가(%)	2002년 실적	증가(%)
수입(A)	544	86.8(16.0)	121	15.7(13.0)	665	102.5(15.4)
수출(B)	43	16.1(37.5)	601	42.4(7.1)	644	58.5(9.1)
B-A	-501	-70.7	480	26.7	-21	-44.0

주: *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수출품과 수입품 중 각각 상위 20개 품목 기준.
 자료: 주문배 외 (2004)에서 발췌 인용

라.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대응과제

한·중·일 3국은 현재까지 자국 수산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제약하는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중·일 FTA가 시행되어 무역장벽이 제거될 경우, 3국 수산부문을 생산소비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시행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급증과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한국 수산업의 생산능력 저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수산업의 피해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 속에서 한·중·일 FTA에 따른 한국의 수산부문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시장개방: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 ② 국내산업: 수산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지원체제 개편
- ③ 대외진출: 수산부문 국제경쟁력 제고와 FDI 진출
- ④ 대외협상: 한·중·일 FTA의 효율적인 협상 추진

2. 양허의 범위와 속도

가.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한·중·일 FTA는 수산부문 개방에 따른 국가간 무역이익의 심각한 불균형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FTA와 같은 포괄적 통상협상의 경우, 각국의 양허이익이 개별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오히려 양측의 전반적인 무역이익 극대화 및 전반적인 균형을 추구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문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이 지나치게 불균형일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협상 추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양허이익의 불균형을 적절히 해소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 가지 방안은 각국이 자국의 일부 민감부문을 양허를 유보하거나 혹은 이행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조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즉 수산업 부문에서도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각국이 신중한 양허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많은 이익을 얻는 국가가 여타 부분에서 상대국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한국이 수산물 관세양허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산업 장기발전방향에의 부합성이다. 특정한 국가 혹은 국가군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한국과 그 국가 사이의 산업무역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세양허의 범위와 관세철폐의 이행속도를 차등화할 수 있다. 그러나 FTA 상대국과의 특수성이 앞서, 기본적으로 한국 수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수산물 관세율 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관세양허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를 완화하는 일이다. FTA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입증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FTA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에서 한국은 점진적이고도 신중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수산업의 취약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국내 수산업은 어로시설의 노후화와 어업경영의 영세화, 어민의 노령화 등으로 어가소득의 상대적인 저하 그리고 어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적응, 즉 산업구조조정이 어려워 수산업은 농업과 같이 매우 민감한 부문이다. 한편 우리의 어촌 및 연안 도서지역은 정주공간으로서, 지역문화의 전승지로서, 연안환경의 보전자로서의 역할 등 중요한 비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과 연안지역 공동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고 보전되어야 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끝으로 여타 대외통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수산부문 양허비율은

WTO에서 43%, 칠레와의 FTA에서 100%,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56% 등 상당한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전개될 대외통상협상을 효과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타 대외협상을 고려하면서 수산물 양허의 수준과 양허유보품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외협상으로서 WTO DDA 협상의 전개와 관련지어 양허비율의 수준 및 양허유보품목 선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감 수산품목으로는 일부 활어 및 선어 그리고 조정관세품목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품목의 경우 협상상대국의 특별한 반발이 없다면 양허에서 제외하고 이행기간도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협상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 양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FTA에 따른 관세철폐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을 통하여 수입품의 소비증가와 수입증대를, 그리고 국내생산제품의 소비감소와 생산량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내 경제주체의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①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② 생산자 후생감소, 즉 국내산업 피해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①과 ②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해당 품목(혹은 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 및 시장구조, 국제시장구조와 정부 및 민간 경제주체들의 대응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양허의 우선순위는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라는 산업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산업의 피해, 즉 민감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수산품목에 대하여 ① 현행 관세율 수준, ② 국내 생산액(최근 3년 평균), ③ 수입규모(최근 3년 평균), ④ 중국과 일본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최근 3년 RCA 평균), ⑤ WTO DD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관세양허유형

등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¹¹⁾

3. 수산부문 구조조정과 지원체제 개편

종전의 공급 중심 수산정책은 어획능력 확대와 산업종사자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양과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입장을 함께 중시하는 수산정책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정책기조하에서 어촌정책은 수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정주공간으로서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의 전반적인 복지를 높이는 어촌 대책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영양섭취와 건강 그리고 웰빙을 증진시키

11) 위와 같은 요소들을 평가항목으로 사용하는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현행 관세율은 해당 품목에 대한 현재의 국내외 여건 및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관세수준이 높을수록 관세철폐시 수입재의 가격하락 폭이 클 것이며, 따라서 국내 수산업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
- ② 품목별 국내생산규모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의 충격을 받게 되는 부문의 규모를 나타냄. 해당 산업의 민감도는 국내 생산액의 규모와 함께 해당 부문의 종사자 수도 크게 의존하겠지만, 406개 품목별 종사자에 관한 통계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국내생산액이 종사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한국의 품목별 수입규모는 관세인하시에 해당 품목의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존 수입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관세철폐시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④ 중국과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한국 수산물 관세양허가 철폐되었을 때, 이들의 수산물이 한국시장으로 수출될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이다.
- ⑤ 기존 대외협상 및 국제협정과의 일관성 유지를 반영한다(김남두 2004에서 발췌 인용).

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 수산업과 어촌정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수산자원 보호와 기르는 어업: 제반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획능력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어업자원 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양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 ②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을 집중 육성: 모든 품목의 수산물을 국내생산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므로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에 한정하여 국내생산기반을 확대·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시장개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수입관리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③ 어업과 어촌의 다기능성 지원: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문제도 어업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정주공간으로서 어촌의 문화 계승, 해양환경 보전, 해양관광자원 확보 등 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어촌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④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1차산업으로서의 어업 중심에서 벗어나 1차 원료를 가공을 거쳐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을 개발 공급해야 한다.
- ⑤ 수산식품의 안전도 제고: 수산식품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내산과 수입산 공히 수산식품의 안전과 식품품질의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과 검사기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한·중·일 FTA는 우리의 수산물 수입시장의 개방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물의 진출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우리 수산업의 비교우위부문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수산물의 향후 소비패턴 변화와 수입수요 전망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막대한 인구의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증대가 요구된다. 소득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증가 추세와 중국내 소득계층의 분화지역 간 수산물 선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양식과 가공분야에서의 대중국 직접투자방안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5. 수산부문의 FTA 협상전략

가.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

한·중·일 FTA 협상에서 중국은 수산부문의 전면적인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전 품목의 즉각적인 관세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기본적으로 수산업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키려 할 것이다. 즉 수산업도 농업처럼 공산품과 구분하여 FTA에서 다룸으로써, 수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부문으로 그리고 농어촌의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특별취급을 받도록 협상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농업부문 시장개방 후에 국내산업 피해가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s: SSG) 제도

를 수산부문에다 설치할 것을 추구해볼 만하다.

우리 수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는 시장개방과 함께, 수산 부문 기술협력에도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 기술과 제도를 가진 일본으로부터 수산자원 관리, 어구·어법 기술, 어업생산관리기술, 수산가공기술, 위생검역제도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이전을 요청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을 추구해야 한다.

나.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

이러한 협상구조 속에서 한국은 국내 수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양허 품목비율을 조정하고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FTA의 수산물 시장개방협상에서 한국은 점진적인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수산업의 피해, 즉 민감성이 큰 부문의 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 WTO DDA 및 여타 FTA와의 일관성

FTA는 해당 국가끼리 추구하는 시장개방협상이지만, WTO DDA 및 여타 FTA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되, 기본적으로는 WTO 협상과 여타 FTA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시장개방 혹은 무역보호의 논리와 수준 등이 한·중·일 FTA 협상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구조적 취약성과 개방에 따른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논리가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 6 장 요약과 결론

한·중·일 FTA는 3국 경제간의 무역증대와 효율성증대라는 큰 경제적 이득과 함께 동북아의 협력과 지역안전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3국간의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논의가 활발해질 소지는 상존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한·중·일 수산업의 국내 위치와 국제적 위상과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와 주요 품목별 경쟁력을 검토해보았으며, 그를 기초로 FTA에 따른 3국의 수산부문 시장개방효과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검토결과 한국은 양 극단의 무역특화구조를 가지고, 이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빠르게 수입특화로 변모하면서 상대국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내 수산물 생산능력 저하와 어업자원 감소라는 여건을 고려하면 그나마도 얻을 수 있는 수출증대 가능성을 실질적인 수출증대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산부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낮은 가격의 해외 수산물이 국내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수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신중한 시장개방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검역 위생안전제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관세양허는 수산업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고, 국내 수산업의 취약

성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산물 시장개방협상에서 한국은 점진적이고도 신중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외협상으로서 WTO DDA 협상 전개와 관련지어 양허비율의 수준 및 양허유보품목 선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어획능력 확대와 산업종사자 소득과 같은 공급 중심의 수산정책은 자원량과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자, 즉 소비자를 중시하는 수산정책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정책기조하에서는 단순한 수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어업인·어민의 복지를 높이는 어촌대책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영양섭취와 건강 그리고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내산과 수입산 공히 수산식품 안전과 식품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발전과 검사기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FTA는 우리 수입시장의 개방과 함께 타국 시장 개방으로 우리 수산물의 진출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우리 수산업의 비교우위부문을 찾아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수산물의 향후 소비패턴 변화와 수입수요 전망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막대한 인구의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증대가 요구된다. 소득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증가 추세와 중국내 소득계층의 분화, 지역간 수산물 선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수산양식과 가공분야에서의 대중국 직접투자방안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문성 외. 2004.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평가 및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일동 외. 2003.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03-06. 한국개발연구원.
- 김남두. 2000. 「무역자유화와 경쟁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 _____. 2004a. 「한-EFTA 자유무역협정 대비 수산업 부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 _____. 2004b.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일 FTA 협상과 수산부문 대응」. 한국수산회.
- 김정봉·주문배 외. 2002. 「한·일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현용. 2002. 「한·일 FTA 체결에 따른 비관세조치 대응」. 한·일 FTA 체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심포지엄. 한국수산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한일 공동심포지엄 자료.
- 박강식·김남두. 2005. 「무역수지와 자유무역협정 방안」.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 박순찬·강문성. 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0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1999.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 연구』.
- 안충영·이창재. 2003.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 이경태. 2005.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2005년 6월 25일) 발표 논문.
- 이광남 외. 2003.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분석」.
- 이광남. 2002.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어업별 영향」.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대응방안 심포지엄.
- 이창수·박지현·김용택·어명근. 2005.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20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연구 04-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식 외.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정책연구 0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재정경제부. 2003.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 정인교.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책연구 03-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2003.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문배·엄선희·이충선·정명화·정인교. 2004. 『한·중·일 FTA 대비 수산부문 영향분석』.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세균·김태곤.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중-ASEAN FTA 상품양허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2001. 『수산물 HS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 _____. 2003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 _____. 2004b. 『수산행정기본자료』.
- _____. 2004c. 『제5차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회 참석 결과 보고서』.
- _____. 2005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 _____. 2005b. 『2004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외국문자료]

[일문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2003. *Abstract of Fishery Statistics*.
- 日本貿易振興會. 2002.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水産物貿易統計年報(輸入)』, 각호.

[영문자료]

- FAO. 2000. *Techno-economic Performance of Marine capture Fisheries*.
- _____. 2003. Fishery Information, Data and Statistics Unit, Overview of Fish Production, Utilization, Consumption and Trade. (May)
- _____. 2004a.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 2002*.

- _____. 2004b.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 _____. *Fishery Statistics: Reliability & Policy Implications*.
-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03. "Toward Closer Japan-Korea Economic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 Jerry L. Holechek and Richard A. Cole. 2003. *Natural Resources-Ecology, Economics, and Policy*, 2nd edition, Prentice Hall.
- JETRO. 2001. "Why a Free Trade Agreement(FTA) Now?" JETRO home page.
- Kim, Namdo. 1996. *Measuring the Cost of the Visible Protections in Korea*. Washington D.C.: IIE. (November)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2004.
-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 Joint Study Group Report.
- Kreinin, M. E., Abe, S. and M. Plummer. 2000.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In K. Fatemi eds. *The New World Order: Internationalism, regionalism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95-108.
- Lee, Chang Jae. 2002. "Major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2002 KIFE/NEAEF Conference on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onolulu, Hawaii, on August 8-9, 2002.
- Lipsey R. G. 1961.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 General Survey." *Economic Journal*, pp. 498~513. (September)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1994.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arrakesh, 15 pp. 33~34. (April)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2.
- OECD. 2003.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Policies and Summary Statistics*.
- _____. 2004.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Country Statistics 2000-2004*.
- Scollay, Robert and John Gilbert. 2001. *New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Asia Pacific?* Washington D.C.: IIE.
-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oint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of China, Japan and Korea FTA b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of Japa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Korea.

- _____. 2004.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 Joint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of China, Japan and Korea FTA b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of Japa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Korea.
- Urata, S. And K, Kiyota. 2003. “The impacts of an East Asia FTA on Foreign Trade in East Asia.” NBER Working Paper No. 10173.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989. *The Pros and Cons of Entering into Negotiations on Free Trade Area Agreements with Taiwn, the Republic of Korea, and ASEAN, or the Pacific Rim Region in General.*
- _____. 2001.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Viner Jacob. 1953. *The Customs Union Issue.*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WTO. 2004a. *Trade Policy Review: Korea.*
- _____. 2004b. *The Impact of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on Fish Trade.*
- _____. 2005. *Trade Policy Review: Japan.*

[무역통계 DB]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kotis)
- www.apectariff.org(APEC 회원국의 관세율데이터베이스)
- www.fao.org(FAO의 수산물 생산통계)
- www.oecd.org(OECD의 관련 데이터)
- www.un.org(UN의 상품별 무역 데이터베이스, comtrade)
- www.wto.org(WTO의 무역통계)

부 록

부표 1. 한국의 수산물목별 무역과 TSI(2000~04년)

HSK (6자리)	품목명	2000년			2004년		
		수출	수입	TSI	수출	수입	TSI
030110	관상용 활어	155	2,509	-0.8836	214	2,968	-0.8652
030191	송어(활어)	2	4	-0.5000	0	141	-1.0000
030192	뱀장어(앵귤라종, 활어)	1,403	29,228	-0.9084	10,427	46,097	-0.6311
030193	잉어(활어)	5	5,658	-0.9982	43	7,743	-0.9890
030199	기타 활어	82,801	78,290	0.0280	80,485	142,674	-0.2787
030211	송어	0	4	-1.0000			
030212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냉)	0	4,159	-1.0000	0	5,873	-1.0000
030219	기타 연어류(신냉)	0	117	-1.0000			
030221	넙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4	9	-0.3846	201	2	0.9803
030222	가자미(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703	198	0.5616	175	119	0.1905
030223	서대(신선, 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	23	-0.8000	16	14	0.0667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0	9	-1.0000	52	222	-0.6204
030231	날개다랭이, 긴지느러미다 랭이(신선냉장)	2	0	0.5000			
030232	황다랭이(신선 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	148	-0.9866	0	128	-1.0000
03023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 우(신냉)				5	1	0.6667
030239	기타 다랭이(신선냉장)	409	61	0.7404			
030240	청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28	9	0.9241	5	1	0.6667
030250	대구(신선, 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0	4,872	-1.0000	0	4,957	-1.0000
030261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 스링, 스포랫(신선냉장)	8	0	1.0000			

부표 1 계속

HSK (6자리)	품목명	2000년			2004년		
		수출	수입	TSI	수출	수입	TSI
030264	고등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3,766	23	0.9879	205	4,040	-0.9034
030265	곱상어, 기타 상어(신냉)				0	2	
030266	뱀장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0	1	-1.0000	0	4	-1.0000
030269	기타 어류(신냉, 간장과 어란 제외)	22,312	70,352	-0.5184	15,880	110,451	-0.7486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냉장)	45	62	-0.1495	0	33	-1.0000
030310	태평양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84	3,219	-0.9491			
030321	냉동송어(간장과 어란 제외)	233	195	0.0888	759	454	0.2514
030322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76	10,667	-0.9859	306	15,523	-0.9613
030329	기타 연어류(냉동한 것, 간장 과 어란 제외)	198	3,506	-0.8931	1,920	2,365	-0.1041
030331	냉동 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1,558	141	0.8340	506	535	-0.0279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2,332	3,134	-0.1465	77	2,991	-0.9498
030333	냉동 서대(간장과 어란 제외)	617	1,939	-0.5172	1,029	4,829	-0.6487
030339	기타 넙치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367	9,844	-0.6123	3,342	20,256	-0.7168
030341	날개다랭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랭이	1,579	9	0.9880	5,538	160	0.9437
0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78,104	1,529	0.9616	67,667	1,257	0.9635
03034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 (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10,676	163	0.9699	14,617	1,142	0.8551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31,120	4,176	0.9383

부표 1 계속

HSK (6자리)	품목명	2000년			2004년		
		수출	수입	TSI	수출	수입	TSI
03034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853	5,644	-0.7374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202,820	6,378	0.9390	20,882	426	0.9600
030350	냉동 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4,274	1,657	0.4412	1,870	3,165	-0.2570
030360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0,951	11,667	-0.0317	4,332	16,104	-0.5761
030371	냉동 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1,115	5,573	-0.6666	592	5,986	-0.8200
030372	냉동 해덕(간장과 어란 제외)				0	39	-1.0000
030373	검정대구(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3	0	1.0000	47	46	0.0215
030374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21,244	20,417	0.0199	9,331	43,444	-0.6464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 간장 과 어란 제외)	212	3,656	-0.8904	80	3,474	-0.9550
030376	냉동 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18	50	-0.4706	0	78	-1.0000
030378	냉동 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4,157	340	0.9530	37	3	0.8500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82,502	398,594	-0.6570	8,537	1,344	0.7279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28,394	76,214	-0.4571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18,704	120,470	-0.7312	102,371	568,346	-0.6947
030410	피레트(신선냉장)	45,319	90	0.9960	27,886	711	0.9503
030420	냉동한 피레트	58,383	50,506	0.0723	60,204	88,050	-0.1878
030490	기타 어육(냉동)	1,953	96,031	-0.9601	1,384	112,095	-0.9756
030510	식용어분	367	564	-0.2116	0	46	-1.0000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2,496	536	0.6464	1,782	771	0.3960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1,643	1,241	0.1394	776	3,913	-0.6690
030541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훈제)	0	1,285	-1.0000	0	448	-1.0000

부표 1 계속

HSK (6자리)	품목명	2000년			2004년		
		수출	수입	TSI	수출	수입	TSI
030542	청어(훈제)				0	1	-1.0000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356	592	-0.2500	197	768	-0.5917
030551	건조대구(훈제한 것 제외)	33	13	0.4565	149	2,270	-0.8768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7,136	19,600	-0.4662	14,275	25,839	-0.2883
030561	청어(염장, 염수장한 것)						
030562	대구(염장, 염수장한 것)	1	0	1.0000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391	7	0.9648	416	38	0.8326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1,650	234	0.7511	1,906	927	0.3456
030611	닭새우류(냉동)	274	3,030	-0.8341	17	3,004	-0.9887
030612	냉동 바다가재(호마루스종)	11	2,089	-0.9890	372	2,575	-0.7475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1,058	61,245	-0.9660	3,243	107,722	-0.9415
030614	계(냉동)	10,007	44,994	-0.6361	6,304	111,114	-0.8926
030619	기타 냉동 갑각류	0	779	-1.0257	25	1,278	-0.9616
030621	닭새우류(냉동한 것 제외)	0	135	-1.0000	0	234	-1.0000
030622	바다가재(냉동한 것 제외)	3	7,449	-0.9992	0	23,187	-1.0000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1,884	17,218	-0.8027	1,019	63,503	-0.9684
030624	계(냉동한 것 제외)	3,920	1,989	0.3266	3,381	65,634	-0.9020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10	81	-0.7912	55	118	-0.3699
030710	굴	100,432	382	0.9924	51,503	155	0.9940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냉장한 것)	145	530	-0.5704	13	4,863	-0.9947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52	2,033	-0.9501	87	2,582	-0.9348
030731	홍합(산 것, 신선냉장)	88	0	1.0000	1	21	-0.9091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233	42	0.6945	46	425	-0.8047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 것, 신선냉장한 것)	192	31	0.7220	851	1,346	-0.2253

부표 1 계속

HSK (6자리)	품목명	2000년			2004년		
		수출	수입	TSI	수출	수입	TSI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82,846	22,880	0.5672	114,251	46,406	0.4223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324	13,089	-0.9517	17	38,087	-0.9991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2,303	44,864	-0.9023	5,160	89,458	-0.8909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산 것, 신선냉장)	0	1	-1.0000	0	3	-1.0000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 동물(산 것, 신선냉장)	142,781	12,643	0.8373	79,906	26,415	0.5031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 동물(냉동, 건조)	23,796	24,808	-0.0208	22,561	28,885	-0.1229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92,120	9,679	0.8098	94,338	13,627	0.7476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8,170	373	0.9128	3,997	382	0.8255
160412	청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7	7	0.8333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팅, 스프랫(조제)	784	56	0.8667	599	208	0.4845
160414	다랑어, 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종)	1,023	665	0.2121	4,165	3,247	0.1239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57	23	0.9207	408	359	0.0639
160416	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2,756	62	0.9560	5,638	243	0.9174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23,632	20,141	0.0798	5,489	54,325	-0.8164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원상)	85,920	1,415	0.9676	37,789	6,166	0.7194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내용물	86,130	3,852	0.9144	46,817	30,751	0.2071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30,954	340	0.9783	43,680	2,400	0.8959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53	19,086	-0.9841	82	31,202	-0.9947
160530	바다가재(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	289	-1.0000	13	256	-0.9033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	129	-0.9254	0	233	-1.0000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71,969	61,263	0.0804	58,557	101,066	-0.2663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사료)	15,754	26,482	-0.2540	14,904	35,184	-0.4049
	계	1,475,781	1,377,757	0.0357	1,226,178	2,240,020	-0.2913

부표 2. 일본의 수산물목별 무역과 TSI(2004년)

HSK	품목명	수출 (백만 엔)	수입 (백만 엔)	TSI
030110	관상용 활어	1,984	2,860	-0.1808
030192	뱀장어(앵굴라종, 활어)	724	31,931	-0.9557
030193	잉어(활어)	76	6	0.8537
030199	기타 활어	2,608	18,753	-0.7558
030211	송어		849	-1.0000
030212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냉)		17,555	-1.0000
030221	넙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	19	-0.9000
030229	가자미(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4	528	-0.9850
030231	날개다랭이, 긴지느러미다랭이(신선냉장)	11	244	-0.9137
030232	황다랭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027	17,186	-0.8872
03023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신냉)		13	-1.0000
030234	눈다랭이(신선냉장)	2,170	14,836	-0.7448
030235	참다랑어	2	21,163	-0.9998
030236	남방참다랑어		5,900	-1.0000
030250	대구(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12		1.0000
030264	고등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447	22	0.9062
030269	기타 어류(신냉, 간장과 어란 제외)	8,894	14,151	-0.2281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냉장)	5	2,084	-0.9952
030311	홍연어	72	25,532	-0.9944
030319	기타 태평양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8,732	31,294	-0.5637
030321	냉동 송어(간장과 어란 제외)	136	25,322	-0.9893
030322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2	2,083	-0.9981
030329	기타 연어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10	254	-0.3956
030331	냉동 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380	13,872	-0.9467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18	-1.0000

부표 2 계속

HSK	품목명	수출 (백만 엔)	수입 (백만 엔)	TSI
030333	냉동 서대(간장과 어란 제외)		65	-1.0000
030339	기타 넙치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52	9,051	-0.9886
030341	날개다랭이 또는 긴지느러미다랭이	6,721	2,384	0.4763
0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1,053	32,131	-0.9365
03034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1,134	6,974	-0.7203
030344	다랭이(신선냉장)	238	76,081	-0.9938
030345	참다랑어	31	10,782	-0.9943
030346	남방참다랑어		11,153	-1.0000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6	14	-0.4000
030350	냉동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404	4,922	-0.8483
030360	냉동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30	7,034	-0.9637
030371	냉동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190	2,677	-0.8675
030374	냉동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1,428	20,077	-0.8672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490	2,110	-0.6231
030378	냉동 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499	768	-0.2123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2,205	61,881	-0.6705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1,658	65,653	-0.9507
030410	피레트(신선냉장)	2,166	4,747	-0.3734
030420	냉동한 피레트	4,076	117,812	-0.9331
030490	기타 어육(냉동)	1,007	64,435	-0.9692
030510	식용어분	22	29	-0.1373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95	21,011	-0.9910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19	1,398	-0.9732
030541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훈제)	2	788	-0.9949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312	2,461	-0.7750
030559	건조 어류(훈제한 것 제외)	1,373	1,037	0.1394
030563	멸치 염장, 염수장(훈제 제외)	18	1	0.8947
030569	기타 염장, 염수장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11	281	-0.9247
030611	닭새우류(냉동)	1	7,866	-0.9997
030612	냉동 바다가재(호마루스종)	10	2,835	-0.9930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668	216,820	-0.9939
030614	게(냉동)	3,107	51,487	-0.8862

부표 2 계속

HSK	품목명	수출 (백만 엔)	수입 (백만 엔)	TSI
030619	기타 냉동 갑각류	98	900	-0.8036
030621	닭새우류(냉동한 것 제외)	1	5,371	-0.9996
030622	바다가재(냉동한 것 제외)	1	2,895	-0.9993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10	3,230	-0.9938
030624	계(냉동한 것 제외)	110	28,451	-0.9923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139	223	-0.2320
030710	굴	245	4,550	-0.8978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냉장한 것)	71		1.0000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6,170	413	0.8745
030739	홍합(냉동, 건조한 것)	30	46	-0.2105
030749	기타 갑오징어, 오징어	1,241	30,787	-0.9225
030751	문어(산 것, 신선냉장한 것)	95		1.0000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500	34,467	-0.9714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신선냉장)	1,792	40,967	-0.9162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5,336	37,532	-0.7510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2,168	21,738	-0.8186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0	5,053	-0.9804
160412	청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303	836	-0.4680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팅, 스포랫(조제)	82	1,004	-0.8490
160414	다랑어, 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763	17,871	-0.9181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23	4,398	-0.7176
160416	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227	4,933	-0.9120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603	100,762	-0.9881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원상)	5,666	20,305	-0.5637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040	9,422	-0.8012
160510	계(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74	25,703	-0.9415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96	51,614	-0.9963
160530	바다가재(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09	354	-0.5292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7	701	-0.8021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20,840	49,664	-0.4088
230120	사료용 어분	1,000	30,846	-0.9372
	계	117,103	1,588,298	-0.8627

부표 3. 중국의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HS 번호 (6자리)	품목명	수출 (천 달러)	수입 (천 달러)	TSI
030110	관상용 활어	3,275	130	0.9236
030192	뱀장어(앵귌라종, 활어)	124,384	5,062	0.9218
030193	잉어(활어)	4,417		1.0000
030199	기타 활어	192,121	5,703	0.9423
030212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냉)		20,878	-1.0000
030222	넙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51	599	-0.8431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103		1.0000
030250	대구(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406	432	0.6956
030265	곱상어와 기타 상어	2	1,278	-0.9969
030269	기타 어류(신선냉장)	212,211	57,762	0.5721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냉장)	5,768	394	0.8721
030311	홍연어(냉동)		5,461	-1.0000
030319	기타 태평양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316	93,903	-0.9933
030321	냉동 송어(간장과 어란 제외)		2,907	-1.0000
030322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2,434	-1.0000
030329	기타 연어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97	3,478	-0.8928
030331	냉동 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365	21,109	-0.9660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19,574	96,602	-0.6630
030333	냉동 서대(간장과 어란 제외)	4,275	1,237	0.5512
030339	기타 넙치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021	14,740	-0.7588
0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1,240	-1.0000
03034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761	1,890	-0.4259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644	11,989	-0.8980
030350	냉동 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1,120	34,506	-0.9371

부표 3 계속

HS 번호 (6자리)	품목명	수출 (천 달러)	수입 (천 달러)	TSI
030360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7,350	722,589	-0.9799
030371	냉동 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2,011	8,654	-0.6229
030372	냉동 해덕(간장과 어란 제외)		29,042	-1.0000
030373	검정대구(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56	1,250	-0.9142
030374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17,962	67,257	-0.5785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1,513	11,387	-0.7654
030376	냉동 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6,355	1,058	0.7146
030377	냉동 농어(간장과 어란 제외)	910	1,478	-0.2379
030378	냉동 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319	4,479	-0.8670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408,174	273,802	0.1970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34,245	101,126	-0.4941
030410	피레트(신선냉장)	8,074	901	0.7992
030420	냉동한 피레트	1,403,167	19,322	0.9728
030490	기타 어육(냉동)	61,067	25,332	0.4136
030510	식용어분	6,834	90	0.9740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44,765	6,895	0.7331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29,444	630	0.9581
030541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훈제)	517	273	0.3089
030542	청어(훈제)	246		1.0000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2,355	91	0.9256
030551	건조대구(훈제한 것 제외)	28,002	962	0.9336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58,100	30,235	0.3154
030562	대구(염장, 염수장한 것)	12,536	574	0.9124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381		1.000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2,288	78	0.9341
030611	닭새우류(냉동)	4,918	4,490	0.0455
030612	냉동 바다가재(호마루스종)	4,068	210	0.9018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410,807	125,375	0.5323

부표 3 계속

HS 번호 (6자리)	품목명	수출 (천 달러)	수입 (천 달러)	TSI
030614	계(냉동)	124,810	78,845	0.2257
030619	기타 냉동갑각류	3,908	1,184	0.5350
030621	닭새우류(냉동한 것 제외)	6	11,940	-0.9990
030622	바다가재(냉동한 것 제외)		131	-1.0000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36,861	11,351	0.5291
030624	계(냉동한 것 제외)	98,002	78,178	0.1125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3,954	327	0.8472
030710	굴	23,867	2,110	0.8375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 냉장한 것)	6,493	5,964	0.0425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33,492	2,058	0.8842
030731	홍합(산 것, 신선, 냉장)	13,509	185	0.9730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7,731	2,849	0.4614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 것, 신선냉장한 것)	3,346	4,323	-0.1274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220,694	168,304	0.1347
030751	문어(산 것, 신선, 냉장한 것)	36,800	54	0.9971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100,226	21,588	0.6456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산것, 신선냉장)	17,874	20,708	-0.0735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신선냉장)	159,396	91,852	0.2688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40,115	12,460	0.5260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114,008	686	0.9880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16		1.0000
160412	청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579	78	0.9059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조제)	8,735	52	0.9882
160414	다랑어, 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종)	8,121	1,750	0.6454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43,332	639	0.9709
160416	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2,767		1.0000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924,802	1,089	0.9976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44,486	1,774	0.9757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55,883	12	0.9996
	계	6,772,156	3,122,847	0.3688

부표 3 계속

HS 번호 (6자리)	품목명	수출 (천 달러)	수입 (천 달러)	TSI
160510	계(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62,064	10,267	0.8808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89,406	350	0.9988
160530	바다가재(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449	2	0.9911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20,350	2,278	0.9628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530,021	4,678	0.9825
203012	사료용 어분 등	3,878	763,467	-0.9899
	계	6,772,156	3,122,847	0.3688

부표 4. 한국의 대일본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HSK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수입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상대 단가*	TSI
030110	관상용 활어	1	16.67	210	32.09	51.94	-0.9905
030191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16	192.77		-1.0000
030192	뱀장어(앵겔라종, 활어)	268	15.08				1.0000
030193	잉어(활어)	43	2.69	17	2.36	113.82	0.4333
030199	기타 활어	80,087	11.02	24,739	6.64	165.85	0.5280
030221	넙치(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96	31.87	2	33.33	95.61	0.9798
030222	가자미(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75	6.64	118	3.80	174.63	0.1945
030223	서대(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6	6.53				1.0000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간장과 어란 제외)	52	29.89				1.0000
030231	날개다랭이, 긴지느러미다랭이	3	1.10				1.0000
03023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토우 (신선냉장)	5	1.20	1	35.71	3.37	0.6667
030239	기타 다랭이(신선냉장)	737	3.46				1.0000
030240	청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5	1.85	1	47.62	3.88	0.6667
030250	대구(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103	2.13		-1.0000
030264	고등어(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93	5.17	3,973	1.57	329.81	-0.9073
030265	곱상어, 기타 상어(신선 간장과 어란 제외)	0		2	0.76		-1.0000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5,756	5.45	67,437	2.36	230.89	-0.6212
030321	냉동 송어(간장과 어란 제외)	111	5.50				1.0000
030329	기타 연어류(냉동한 것, 신냉 간장과 어란 제외)	1,920	4.95	364	1.55	318.83	0.6813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8	5.41				1.0000
030333	냉동 서대(간장과 어란 제외)	52	4.39				1.0000
030339	기타 넙치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277	1.37	88	1.12	122.14	0.5178
030341	날개다랭이 또는 긴지느러미	2,780	1.79	160	2.13	84.11	0.8912
0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62,111	3.01	179	3.35	89.82	0.9943

부표 4 계속

HSK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수입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상대 단가*	TSI
030343	가다랭이, 줄무늬 버니 토우 (냉동, 간장과 어란 제외)	92	0.84	10	2.68	31.26	0.8039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26,993	6.38	1,869	5.46	116.82	0.9710
030345	참다랑어(터너스티너스)	824	10.27	416	10.97	93.56	0.3290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한 것)	19,836	4.07	50	8.99	45.21	0.9950
030350	냉동 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665	0.59	4	7.83	7.57	0.9880
030360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589	0.56		-1.0000
030371	냉동 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158	0.74	245	0.43	173.15	-0.2159
030374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5,595	2.80	5,199	0.74	378.73	0.0367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 간장 과 어란 제외)	5	3.51	843	1.49	235.10	-0.9882
030377	냉동 농어(간장과 어란 제외)			3	7.58		-1.0000
030378	냉동 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889	3.22	5	0.34	947.58	0.9888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31,669	2.54	28,139	0.69	369.61	0.0590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2,735	7.70	2,191	5.75	133.82	0.1104
030410	피레트(신선냉장)	27,821	9.36	267	43.29	21.62	0.9810
030420	냉동한 피레트	54,945	7.68	5,535	6.73	114.07	0.8170
030490	기타 어육(냉동한 것)	725	1.52	225	1.08	141.32	0.5263
030510	식용어분			22	17.32		-1.0000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1,391	13.44				1.0000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42	16.15	7	37.23	43.38	0.7143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107	12.59		-1.0000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9,822	10.22	1,446	4.06	251.34	0.7433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90	1.61				1.000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272	6.88	0			1.0000
030611	닭새우류(냉동한 것)			4	21.74		-1.0000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1,413	1.82	36	1.07	170.19	0.9503
030614	게(냉동한 것)	3,378	8.91	52	3.62	245.93	0.9697
030619	기타 냉동 갑각류	25	1.73				1.0000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772	21.99	132	5.79	379.87	0.7080

부표 4. 계속

HSK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수입액 (천 달러)	단가 (달러/kg)	상대 단가*	TSI
030624	계(냉동한 것 제외)	1,436	9.76	958	6.93	140.85	0.1997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13	11.61	45	22.90	50.68	-0.5517
030710	굴	38,516	5.12	71	4.18	122.57	0.9963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냉장한 것)			526	2.50		-1.0000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81	11.48	52	2.25	510.40	0.2180
030731	홍합(산 것, 신선냉장한 것)	1	1.00	20	2.12	47.15	-0.9048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46	4.09				1.0000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 것, 신선냉장)	229	1.60	1,328	2.33	68.82	-0.7058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10,772	2.32	1,030	1.38	168.56	0.8255
030751	문어(산 것, 신선냉장한 것)	17	5.31	539	3.86	137.42	-0.9388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340	2.88	589	2.35	122.16	-0.2680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신선냉장)	79,371	4.66	12,587	1.24	374.60	0.7262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14,288	21.03	3,773	7.34	286.51	0.5822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77,625	3.82	496	2.89	132.28	0.9873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2,638	3.72	5	8.33	44.65	0.9962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팅			87	28.16		-1.0000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다르중)	1,982	4.48	806	19.07	23.48	0.4218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106	8.42		-1.0000
160416	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	5,434	11.38	68	13.72	82.98	0.9753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3,027	11.34	776	15.71	72.17	0.5919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원상)	9,346	8.80	2,070	12.62	69.74	0.6374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내용물	45,986	15.29	1,207	17.34	88.16	0.9488
160510	계(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37,245	10.78	258	15.02	71.80	0.9862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33	17.33		-1.0000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25,244	12.02	1,692	10.23	117.58	0.8744
230120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사료)	1,185	1.24	76	3.78	32.68	0.8795
	계	809,775		176,004			0.6429

주: * 상대단가는 한국의 대일본수출단가의 대일본 수입단가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임.

부표 5.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목별 무역과 TSI(2004년)

HSK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수출 단가 (달러/kg)	수입액 (천 달러)	수입 단가 (달러/kg)	상대 단가*	TSI
030110	관상용 활어			316	14.88		-1.0000
030191	송어			4	137.93		-1.0000
030192	뱀장어(앵귤라종, 활어)			18,758	5.42		-1.0000
030193	잉어(활어)			7,726	1.35		-1.0000
030199	기타 활어	86	19.63	117,805	2.95	666.24	-0.9985
030223	서대(신선냉장)			14	2.65		-1.0000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			222	2.65		-1.0000
030250	대구(신선냉장)			2,730	1.62		-1.0000
030264	고등어(신선냉장)			66	1.37		-1.0000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41,249	2.90		-1.0000
030322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	271	6.48				1.0000
030331	냉동 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144	5.09				1.0000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1	1.01	205	0.83	121.52	-0.9903
030333	냉동 서대(간장과 어란 제외)			4,200	2.81		-1.0000
030339	기타 넙치류 (냉동)	2,054	1.20	1,414	2.52	47.56	0.1845
030342	냉동 황다랭이(간장과 어란 제외)	238	6.86				1.0000
030344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37	9.46	24	4.54	208.22	0.2131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	1	20.41				1.0000
030350	냉동 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8	0.57	8	1.60	35.71	0.0000
030360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2,583	2.34	1,148	1.03	227.64	0.3846
030371	냉동 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71	0.78	13	0.27	289.39	0.6905
030373	검정대구(냉동, 간장과 어란제외)	47	7.17				1.0000
030374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1,191	1.21	2,592	0.36	332.12	-0.3703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냉동)			213	2.65		-1.0000
030378	냉동 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219	1.35				1.0000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23,424	1.20	252,216	1.30	91.92	-0.8300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	23,761	12.42	2,438	4.45	278.91	0.8139

부표 5 계속

HSK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수출 단가 (달러/kg)	수입액 (천 달러)	수입 단가 (달러/kg)	상대 단가*	TSI
030410	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60	1.88	1	4.17	45.23	0.9672
030420	냉동한 피레트	3,767	6.57	42,365	1.99	329.86	-0.8367
030490	기타 어육(냉동한 것)	340	1.67	17,907	0.78	213.47	-0.9627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116	2.54		-1.0000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312	4.34	3,153	5.25	82.55	-0.8199
030542	칭어(훈제한 것)			1	1.00		-1.0000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187	4.40		-1.0000
030551	건조 대구(훈제한 것 제외)	148	5.16	2,143	5.07	101.76	-0.8708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999	4.50	21,255	5.34	84.40	-0.9102
030563	멸치(염장, 염수장한 것)	95	0.97	17	0.32	300.87	0.6964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271	0.39		-1.0000
030611	닭새우류(냉동한 것)			12	5.68		-1.0000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931	3.05	29,961	3.01	101.32	-0.9397
030614	게(냉동)	1,428	7.72	79,515	3.74	206.53	-0.9647
030619	기타 냉동 갑각류			1,021	7.01		-1.0000
030622	바다 가재(냉동한 것 제외)			1	1.96		-1.0000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2	0.67	30,929	1.24	53.93	-0.9999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28	6.94	8,666	3.37	205.62	-0.9936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등)	39	0.73	24	3.63	20.24	0.2381
030710	굴	1,300	4.41	74	1.13	389.85	0.8923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냉장)	13	1.18	3,863	1.38	85.88	-0.9933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냉동, 건조)			2,439	2.06		-1.0000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139	3.83		-1.0000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 것, 신선냉장)	504	1.40				1.0000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44,513	1.56	2,074	1.35	116.25	0.9110
030751	문어(산 것, 신선냉장)			37,531	2.35		-1.0000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37	1.42	57,081	1.83	77.19	-0.9987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냉장)	305	1.10	12,840	0.48	227.61	-0.9536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6,987	5.97	12,366	2.07	288.10	-0.2779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2,902	0.39	3,892	0.65	60.92	-0.1457

부표 5 계속

HSK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수출 단가 (달러/kg)	수입액 (천 달러)	수입 단가 (달러/kg)	상대 단가*	TSI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37	8.21		-1.0000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팅, 스포랫(조제)	2	1.89				1.0000
160414	다랑어 · 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중)	370	8.21				1.0000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	3	2.08	236	7.73	26.96	-0.9749
160416	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	88	0.59	12	2.62	22.68	0.7600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410	1.84	21,829	7.90	23.25	-0.9631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1,066	10.62	3,023	6.19	171.54	-0.4786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8	9.00	25,297	10.51	85.64	-0.9986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	152	4.71	290	2.40	196.45	-0.3122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	9	1.25	6,990	4.52	27.68	-0.9974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조제 처리)			228	4.77		-1.0000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599	1.43	24,355	2.25	63.42	-0.9520
230120	사료용 어분	285	0.57	251	0.53	108.37	0.0634
	계	122,848	-	905,753	-	-	-0.7611

주: * 상대단가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단가의 대중국 수입단가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임.

부표 6. 중국의 대일본 수산품목별 무역과 TSI(2004년)

(단위: 천 달러)

HS	품목명	수출	수입	TSI
030110	관상용 활어	181	8	0.9153
030192	뱀장어(앵귌라종, 활어)	102,096		1.0000
030199	기타 활어	40,775	70	0.9966
030212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신냉)		2,185	-1.0000
030229	기타 넙치류(신선냉장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01		1.0000
030269	기타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신냉)	56,862	16	0.9994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신선냉장)	5,363		1.0000
030311	냉동 홍연어		2,530	-1.0000
030319	냉동 기타 태평양 연어	59	36,809	-0.9968
030322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18	-1.0000
030329	기타 연어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98	2,123	-0.8294
030331	냉동 넙치(간장과 어란 제외)	203		1.0000
030332	냉동 가자미(간장과 어란 제외)	18,424	285	0.9695
030339	기타 넙치류(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909	14	0.9697
030349	기타 다랭이(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89	5,480	-0.9680
030350	냉동 청어(간장과 어란 제외)	1,017	428	0.4076
030360	냉동 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119	11,481	-0.8224
030371	냉동 정어리(간장과 어란 제외)	504	778	-0.2137
030374	냉동 고등어(간장과 어란 제외)	2,095	424	0.6634
030375	급상어, 기타 상어(냉동한 것, 간장과 어란 제외)	1,162	1,706	-0.1897
030376	냉동 뱀장어(간장과 어란 제외)	140	112	0.1111
030378	냉동 민대구(간장과 어란 제외)		113	-1.0000
030379	기타 냉동한 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57,881	9,062	0.7293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냉동한 것)	32,803	8,047	0.6060
03041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14	51	0.3818
030420	냉동한 피레트	344,724	636	0.9963

부표 6 계속

HS	품목명	수출	수입	TSI
030490	기타 어육(냉동한 것)	24,805	143	0.9885
030510	식용어분	2,327	65	0.9457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29,715	498	0.9670
030530	어류의 피레트(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8,336	151	0.9644
030541	태평양연어, 대서양연어, 다뉴브연어 (훈제한 것)	510		1.0000
030542	청어(훈제한 것)	246		1.0000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피레트 포함)	1,139	13	0.9774
030551	건조 대구(훈제한 것 제외)	733	5	0.9864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훈제한 것 제외)	13,635	396	0.9436 0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880	11	0.9753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한 것)	135,851	4,203	0.9400
030614	게(냉동한 것)	37,475	8,544	0.6287
030619	기타 냉동 갑각류	1,050	158	0.7384
030623	새우, 보리새우(냉동한 것 제외)	5,115	645	0.7760
030624	게(냉동한 것 제외)	58,348	30	0.9990
030629	기타 갑각류(분·조분 및 펠리트 포함)	1,764	1	0.9989
030710	굴	18,866	129	0.9864
030721	가리비과의 조개(산 것, 신선냉장한 것)	1,418	6	0.9916
030729	가리비의 조개(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4,457	977	0.6404
030731	홍합(산 것, 신선냉장한 것)	923		1.0000
030739	홍합(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424	7	0.9675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산 것, 신선냉장한 것)	458	23	0.9044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한 것)	73,157	7,360	0.8172
030751	문어(산 것, 신선냉장한 것)	256		1.0000
030759	문어(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것)	37,682	1,361	0.9303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제외, 산 것, 신선냉장)	9,413	239	0.9505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신선 냉장)	117,797	90	0.9985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건조)	26,675	1,128	0.9189

부표 6 계속

HS	품목명	수출	수입	TSI
121220	해초류와 기타 조류	80,470	1185	0.9710
160411	연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37		1.0000
160412	청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555	43	0.9462
160413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스프랫(조제)	5,994	7	0.9977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투우(사르다종)	2,614	26	0.9803
160415	고등어(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41,422	13	0.9994
160416	멸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00		1.0000
160419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어류	791,131	35	0.9999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42,033	359	0.9831
160430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54,235	9	0.9997
160510	게(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78,589		1.0000
160520	새우, 보리새우(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84,413	55	0.9987
160540	기타 갑각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6,151	6	0.9993
1605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기타	352,630	354	0.9980
230120	사료용 어분	851	80	0.8281
	계	2,833,820	110,923	0.9247

Executive Summary

Korea-China-Japan FTA and the Korean Fisheries

Namdo Kim

This volume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effects of possible Korea-China-Japan free trade agreement, KCJ FTA, on their fisheries industry, and draw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fisheries. For this research objective, we are to evaluate domestic and external situations of fishe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To assess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we utiliz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market shares and export and import unit price indices for the specific items under the product classification in HS 6 digit.

Korean fisheries reversed long-lasting export specialization to import specialization in 2001. Since then, import specialization of Korean fishery sector has been intensified. Its TSI has fallen to -0.29 in 2004 from 0.04 in 2000. The number of Korean fishery products specialized in export has decreased from 34 in 2002 to 24 in 2004, while the products specialized in import have increased from 37 items to 54 items. For import specialization, the number of products close to complete import-specialization with the index -0.80~-1.00 increased sharply. In th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SI of the Korea's fisheries sector is 0.64 in 2004 showing considerable degree of export specialization. Korea's major export-specialized products in Japanese market are frozen big-eye tunas, seaweeds and other algae, yellow-fin tuna in

the highly export -specialized group, some live fish and some molluscs in export specialization group. In Korea-China trade,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of Korea's fisheries is -0.76 in 2004, indicating high degree of import specialization. This is the opposite direction of Korea-Japan trade of fisheries products but with higher degree of trade specialization.

The effect of KCJ FTA on Korean fisheries is anticipated to be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Removal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by the FTA will bring more expansion of import than of export, being followed by the de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and negative effect in trade balance for Korean fisheries. On the other hand, consumer's surplus would be expected to grow as people can choose fishery products of lower price. Its negative effects on Korea's fisheries would reflect current trade situation and productive capability of Korean fisheries, such as aging fishermen, reduction of fishing capacity and rapid decline of fisheries resource stocks. In Korea's fisheries trade, the degree of import specialization with respect to China outweighs that of export specialization with respect to Japan. And, even in Japanese fisheries market, Korean fisheries products fall behind of Chinese ones in terms of market shares and price competitiveness. Thus even if Japanese demand for Korean fishery products would rise after the FTA,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might not be able to increase its production and export quickly.

Under such a suffering fisheries sector and potential effects of the KCJ FTA, the Korean government faces some policy assignments to restructure the fisheries industry, to minimize its negative effects and to utilize th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fisherie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some principles for scheduling the tariff concessions of fisheries products for the future FTA. In this process, we need to keep policy

consistency across various trade negotiations with the long-term vision on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n addition to the supply-side policy considerations, the government has to pay more attentions on consumers' welfare under more open trading environments. Government authorities are to do better for providing fresh and secure foods with lower prices. Also business firms have to try to find new opportunities caused from the FTA. Korean firms in aquaculture and fish processing should capitalize on the better environment f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as well as the larger export market for Korea's marine products.

KIEP 발간자료 목록(2005~06. 4)

동북아연구시리즈

-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 Zhaoyong ZHANG
-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 Richard E. Baldwin
-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 Kiyotaka Sato
-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Lee-in Chen Chiu
-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 Yin-Wong Cheung
-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CHEN Hong
-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coise NICOLAS
-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 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 임 명
-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05-08 The Impact of FDI from South Korea to China on Bilateral Trade / Liu Xiangfen
-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정책연구

-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 김원호 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남영숙 외
-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방호경 외
-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최낙균
-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윤창인
-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이창수
-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윤미경·윤창인·이상승
-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양두용 외
-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김홍중 외
-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정인교 외
-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강문성
-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이홍배 외
-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지만수 외
-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홍익표 외
-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안형도·오용협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전일수·홍석진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이상학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이형근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상일 외
-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 05-09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홍중·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
-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중규
-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울·왕윤중·오쿠다 사토루·정재완
-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 · 최의현 · 이남주 · 김석진 · 백권호
-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 · 정승호 · 윤정혁 · 이상민
-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 · 동용승 · 홍익표 · 이재영 · 이종운 · 정형근
-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 · 임혜준 편
-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 · 김종혁

지역연구

-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박복영
- 04-02 중 · 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김홍종 · 이철원 · 김병연

Policy Analyses

-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 05-03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정책토론회시리즈

-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 · 홍수연
-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근

정책자료

-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찬 외
- 04-02 對중남미 경제협력 증장기 전략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04-03 ASEAN + 3(한 · 중 · 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 04-04 폴란드의 정치 · 경제 현황과 韓 · 폴란드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 김홍중·김근태
-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 강준구·박지현
- 04-07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김정곤·박혜리
- 04-08 쇄고기 수입개방 이후 쇄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박지현
-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강준구
-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 엄부영·강정실
- 04-11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부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홍수연
-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홍중·김근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 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 송영관
-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김우영·박순찬

세미나자료모음집

-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홍중·박성훈·페터 가이 편
- 06-01 Road to Prosperity and Cooperati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Asia
- 06-02 Africa in the World Economy: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hallenges/FONDAD·KIEP

APEC Study Series

-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Seok-young Choi

-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OECD Study Series

-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Yull Choi

Discussion Papers

-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04-02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Tae Hwan Yoo
04-03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 Young-Sun Lee and Deok Ryong Yoon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Working Papers

-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04-04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04-05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04-06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04-07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 Wanjoong Kim and Terrence Kinal
04-0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sumption Risk Sharing / Yonghyup Oh
04-09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 Jong-Woon Lee
04-10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04-11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FTA Partners / Chan-Hyun Sohn and Hyun-Hoon Lee
04-1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 East Asia / Soon-Chan Park, Hongshik Lee, and Mikyung Yun
- 04-13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 Sung Jin Kang and Hongshik Lee
- 04-14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Zhaoyong Zhang
-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지역리포트

-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박영호
-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
-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박영호
-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박영곤
-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 김홍중·김균태
-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권경덕·김은지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홍중·김균태·Bernhard Seliger
-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지역연구회시리즈

-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김은경·김홍중
-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김홍중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운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쓰히로

단행본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이철원 · 정후영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 이경태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최낙균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 · 강준구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 · 김관호 · 원신희
-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 · 이성봉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이경태 편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조명철 편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 최낙균 · 윤창인 · 송유철 · 이성봉 · 김준동 · 양준석 · 이종화 · 손찬현 · 강문성 · 박순찬 · 윤미경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rean Crisis and Recovery / 김세직 · David T. Coe eds.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KOPEC · KIEP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안충영 편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안충영 편
-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 김원호 편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2003/04 북한경제백서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 · 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 · 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 · 손병해 공편저

김남두(金南斗)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강릉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現, E-mail: ndkim@kangnung.ac.kr)

著書 및 論文

『한국무역론』(20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공저, 2005) 외

동북아연구시리즈 06-01

한 · 중 · 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2006년 4월 18일 인쇄

2006년 4월 21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현대에드컴 전화: 2275-8125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5067-7 94320
89-322-5047-2(세트)

정가 7,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B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 02)3460-1179 FAX : 02)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CI) 발간자료,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 글)	(한 문)
	(영 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 편 번 호	
담당자 연락처	전 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 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김 남 두

수산분야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과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산부문에서 2001년 무역적자로 돌아선 이후 수산물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중·일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다루고 있는 본 보고서는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수산물 교역구조 및 국제경쟁관계를 분석하고 3국의 수산부문 무역장벽을 비교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를 추정하고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산부문의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9 788932 250670
ISBN 89-322-5067-7
ISBN 89-322-5047-2(세트)

정가 7,000원